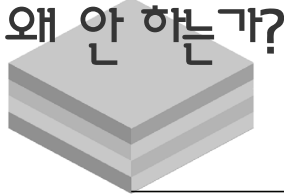


왜 안 하는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대예배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끝에는 목사가 두 손을 들어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침례교회나 한국의 독립침례교회¹⁾ 등에서는 예배 순서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단 감별의 시금석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 여부를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에 들어서면 일단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하고 의아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교회와 달리 자유교회에서는 새벽기도나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또 자매들이 공적인 기도를 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와 자유교회는 겉모습만 살펴봐도 무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대개 목사가 가운데 입을 입고 시간이 되면 '땡땡땡' 하고 종을 친 뒤 예배 의식을 집행하며 이런 의식의 일환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또 기존 교회는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르며 많은 경우 축도를 하는 목사는 축복권 및 저주권을 가진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신약 교회의 예배 형식으로 더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추적하고, 사도신경 및 주기도문 암송,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등이 성경적인 예배 절차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그리고 방언/신유/축사 등이 신약시대에 합당한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조명해 보면 한국 교회의 여러 전통들이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샤머니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관행이나 전통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며 전 생애를 보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즉 교회와 목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누구라도 쉽게 성경적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앞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교회들을 자유교회 혹은 독립교회라 할 것이다.

끝으로 애써서 설교/강해를 녹취해 주신 홍성인 형제님, 록 음악 부분을 번역해 주신 남운수 자매님, 정성껏 원고를 교정해 주신 김대용, 장용철 형제님, 이정원, 주경선 자매님과 귀한 표지를 만들어주신 김재욱 형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를 통해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넘치도록 불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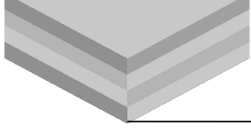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요4:22-24).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신약시대에 신약 교회를 하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샬롬!

〈제목 차례〉

왜 안 하는가?	1
두 종류의 교회	2
예배 형식 차이의 원인	7
사도신경	9
주기도문	19
축 도	28
새벽기도	35
통성기도	40
구약의 십일조	49
일천 번제	80
열린 예배와 록 음악	96
방언/신유	110
축 사	137
추천 도서	143

두 종류의 교회



한국에는 개신교회가 주류이므로 역사적으로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해 왔음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예배 형식의 큰 차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교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I will build my church, 마16:18)라는 웅대한 선언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획기적인 선언 속에는 신약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교회 곧 ‘에클레시아’(Ecclesia)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벧전2:5, 9).

그러나 주후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구약의 제사장 계급 체제로 돌아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무리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계2:15).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와 창조물인 교회를 따르는 ‘교회교’ 사이의 심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입니다. 즉, 교회 역사는 ‘국가교회’(State church)인 ‘교회교’가 ‘자유교회’(Free church)인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해 온 역사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된 교회와 바른 교회사에 근거하여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의 배도가 바로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오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구약 성도들, 열두 사도들, 첫 순교자 스테반, 첫 선교사 바울 등 대부분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며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으며 사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천주교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약의 복음 또한 로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부터 천주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거짓말을 믿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기독교회사가 필립 샤프 같은 자유주의자 즉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사가들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었고 또 ‘천주교에서 나왔으나 천주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처럼 ‘왜곡된 교회사’ 즉 엄밀한 의미에서 천주교회사를 자기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여과 없이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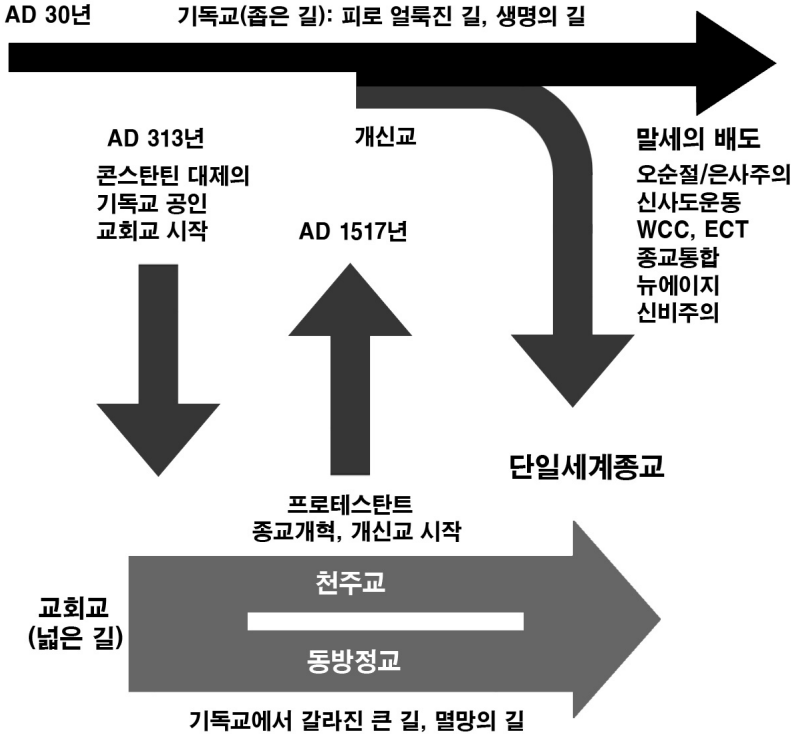
고귀한 무리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순응하였으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이사)가 자기를 주 하나님으로 선언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를 신이라 부르면서 자기에게 경배와 희생을 드릴 것을 요구했으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가치관뿐 아니라 심지어 황제의 법도 주 하나님의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었고 결국 자기를 신으로 선언한 황제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이사르는 기독교와 바빌론 신비 종교를 혼합해서 자신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가교회인 천주교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라는 배도의 넓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편 이것을 거부하는 참 성도들은 맹렬한 핍박을 받으며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결코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귀한 무리들은 자기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신앙 양심을 따라 국가교회가 아닌 자유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냐, 카이사르냐?

주후 313년, 대음모자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타락한 국가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자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중세암흑시대에 천주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 1세기 후반에는 그 당시의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교회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짚어지고 도시를 떠나 산지에서 계곡에서 유랑하며 꾸준히 순례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믿는 성도만이 교회의 회원이 됨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선언하고 재침례를 행했습니다.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제국에서 노바티안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역시 유아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또한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이 초대 자유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뒤 자유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왈덴시안)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이라는 이름의 자유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겐시들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주후 1517년 천주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교황과 천주교회에 대항하며 ‘항거자’ 즉 프로테스탄트가 되어 개신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성경의 자유교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에 천주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루터교회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 교리를 제외하고는 천주교회의 악습과 전통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생명이 없는 국가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1998년 6월에 미국의 루터교회는 다시 천주교회와 하나가 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로교회의 아버지 칼빈 역시 유아세례 등의 악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구약시대 장로들의 신정정치 국가교회를 구축하면서 재침례교도 같은 자유교회 무리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 - 개신교회들 - 은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천주교회의 신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결같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따랐고, 성경 말씀 준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교리에서 자유교회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대 자유교회

한편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교회는 재침례성도, 메노나이트 등의 이름으로 온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회중 통치를 가르치며 믿는 자들만의 교회 회원권, 전 성도 제사장 직분,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등을 외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민의 물결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7,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유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은 침례교인들(Baptists)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존 번연, 찰스 스펄전,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국가교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침례교인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종교를 택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국가교회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이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자유들을 허락함으로써 결국 전 세계 시민들이 자유교회의 투쟁으로 인한 인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배도

지금 온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UN 주도 하에, 경제는 WTO 등을 통해 이미 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종교는 1960년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천주교회의 주도하에 급속도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WCC, NCC, 오순절/은사주의, 뉴에이지 운동, 록음악, NIV, Living Bible 등의 타락한 성경,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복음주의자와 천주교도의 연합, ECT) 등이 모두 천주교회의 통제를 받으며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천주교회가 주축이 된 사상 최대의 국가교회가 우리 앞에 출현하여 다시 한 번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세의 배도에 대하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루터로부터 출발한 프로테스탄트 루터교회가 천주교회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성경에 두지 않으면 누구나 배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배도한 교회와 철저히 분리된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피를 흘리며 남겨 준 발자취를 따를 때에만 배도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도 칠천 명의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신도 그런 남은 자중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후에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내가 속한 무리가 순결한 자들인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부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과연 맹목적으로 '교회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예배 형식 차이의 원인



자,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았으면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자유교회의 예배 형식이 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곧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천주교회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와 비슷한 형식의 ‘의식 예배’(Ritual service)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임 장소를 성전 대신 성당이라고 부르고 사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 평신도와 다른 부류로 취급하며 예배 안에 각종 형식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형식과 의식을 보면서 천주교 예배는 대단히 장엄하다고 말합니다.

천주교회에서 나온 개신교회도 태생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대부분 천주교회와 유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개신교회는 대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목사가 거의 구약시대 제사장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신도와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고 이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리면서 예표였던 구약시대가 사라지고 실제인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므로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마27:51; 막 15:38; 눅23:45). 이를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유월절 관례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²⁶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²⁸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6-28).²⁾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약시대가 열렸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형식과 계급체제 등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실히 인식한 자유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시대의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왔고 이것은 ‘의식 예배’가 아니라 ‘비의식 예

2) 마26:28의 ‘새 상속 언약’은 영어로 ‘New Testament’이며 짧게 ‘신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개역성경(개정개역 포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새’(New)를 제거하여 새 언약의 신약시대가 열린 것을 성도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

배'(Non-ritual service)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전까지 신약시대의 초기 1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모조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연스럽게 예배 장소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있는 이래로 사도 바울에 의해 곳곳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형식으로 가득한 구약시대의 의식 예배는 완전히 폐지되고 간결한 형태의 비의식 예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을까요? 예배당을 성전 혹은 성당이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시대의 의식 예배를 집행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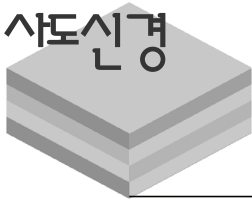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은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유대인 조상들이나 심지어 유대인 사도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입니다(행15:10). 이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령님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숭배, 부정한 음식, 음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교회 성도들의 예배에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와 대언(설교)만 있었습니다(엡5:19; 고전14:26-33).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이 예배 모임에서 회중이 정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주의 만찬을 행하였습니다(마26:26-30; 고전11:23-34). 이것이 자유교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에는 천주교 예배의 일부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 뒤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읽으면 더 확실히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혹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사도신경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주일마다 암송하는 신앙고백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암송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 (1)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 (2) 교회 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 (3)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 (4) 특별한 성격의 예배를 드릴 때(예: 총회나 노회 등의 개회 예배)
- (5) 기타 예배 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6) 또한 예배 인도자의 재량이나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외의 예배 순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예배를 마칠 때 주로 암송하는 주기도문과는 달리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같은 자유교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 주로 천주교 산물이라는 이유로 -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 교회인 침례교회들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전혀 암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암송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이단이나, 아니냐를 나누는 이상한 전통이 있으므로 이것은 조금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수태되어 탄생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수난, 부활, 심판 교리가 담겨 있으므로 이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암송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고 암송하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이나, 아니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사도신경의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도신경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려 합니다.

사도신경의 정체

● 사도신경은 천주교회의 작품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주후 55년에 12 사도가 기독교의 요점을 요약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베드로가 사도신경의 처음 한 구절을 기록하자 나머지 사도들이 차례차례 한 구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30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신약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약 교회가 생긴 이래로 주후 100년경까지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므로 사도신경 같은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다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또는 교부들의 시대가 이르자 침례 문답 때 간단한 문답서 같은 안내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100-125년경에 간단한 교리 문답서로 <신앙의 규율>(Rules of Faith)이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주후 170-180년경에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주후 325년의 니케아 신조,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결의, 431년의 에베소 결의,

451년의 칼케돈 신조 등은 역사적으로 교회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했다거나 합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정직한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주후 400년경에 활약한 암브로스 등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뒤 주후 650년경에 사도신경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란 말이 삽입되었고 또 650년 이후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란 말이 다시 삽입되었습니다.³⁾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주후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완성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이 주후 381년경에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교회의 회의 자료는 사도신경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결코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은 세월 동안 조금씩 발전시키고 보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도신경의 교리적 문제

자유교회에서는 이런 신조를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이것들을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카톨릭 사도신경과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을 비교한 것입니다.

1. 동정녀에 대하여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가 ‘Virg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명사 즉 ‘하나님’(God), ‘그리스도’(Christ), ‘성령님’(Holy Ghost) 등은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리아는 ‘한 처녀’(a virgin)이지 결코 ‘그 동정녀’(The Virgin)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치켜세워 신성시하는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심각한 오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남녀 동생들은 그분의 사촌들이라고 주장합니다(마 13:55-56; 막6:3; 요7:3; 갈1:19). 그리해야만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 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절한 중보자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동정녀 또한 천주교회의 이런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처럼 ‘a virgin’을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로 바르게 번역해서 읽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천주교회의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으므로 암송하더라도 뜻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⁴⁾

3) 샤프(Phillip Schaff)의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2권, 528-537 쪽 참조, 정수영 저 〈새 교회사〉, 규장 출판사

4) 천주교에 대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천주교 사도신경과 개신교 사도신경 비교〉

카톨릭교회의 사도신경	개신교회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승(고성소)에 가시어(내리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나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혹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삭제됨

영어와 원어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있지만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분께서 저승에 갔다고 버젓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⁵⁾

5) 원조(元祖)들이 죄를 지은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천당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착하게 산 구약의 성조(聖祖 - 예컨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들은,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천당 문을 열 때까지 어떤 곳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곳을 고성소(古聖所)라 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은 땅에 묻히시고 그의 영혼은 고성소에 가시어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의 성인들을 위로하셨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카톨릭주의에서 주장하는 연옥⁶⁾과 림보⁷⁾ 등의 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도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교회의 교리에 따라 해석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나와 같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중심부)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시편 16편 8-11절을 인용하며 “주께서 내 혼을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 - 엄밀하게는 그분의 혼 - 이 지옥에 갔다가 부활했음을 보여 줍니다.⁸⁾ 물론 우리말 성경은 이런 부분의 지옥을 모두 불교 용어인 ‘음부’라고 번역해서 바른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즉 지하세계의 지옥 부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8-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⁸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⁹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¹⁰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천주교회에서 굳이 밝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할까요? 천주교회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관례가 있고 실제로 천주교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과 반전3:18-20을 묶고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주장합니다.

-
- 6) 카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다. 영혼들은 연옥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정화한다. 연옥이 정죄계(淨罪界, 깨끗함과 죄 사이의 경계)나 정화소(淨化所, 깨끗해지는 장소)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화의 방법으로는 ‘정화하는 불(purgatorius ignis)’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내려질 불’에 근거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 7)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지옥의 변방: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으며 그리스도교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백치 등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가리킨다(네이버 영어 사전).
 - 8)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 3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예수 안에’ 출판사의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¹⁸...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¹⁹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²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 구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과연 사람이 죽은 뒤에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벰전3:19는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영들은 분명히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 부류의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천사들입니다. 벰후2:4와 유6은 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죄를 지어 지옥에서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둘째는 노아 당시에 죄를 지어 대홍수로 멸망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입니다(창6:4). 물론 이들도 대홍수에 휩쓸려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벰전3:19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영이라 불린 적이 없으므로 여기의 영들은 천사들과 그들이 낳은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⁹⁾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기에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의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선언하셨다는 의미의 ‘케뤼소스’입니다. 그러므로 벰전3:19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그들에게 가서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승리와 그들의 정죄’를 선언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며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는 결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또다시 선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개신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¹⁰⁾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보면서 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9) 천사에 대해서는 <천사와 UFO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재철 사도신경’이라고 치면 여러 개의 관련 기사가 나온다.

3. 거룩한 공회

영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으나 천주교나 개신교 신경에서는 ‘거룩하고 공변된 - 혹은 보편된 - 교회’나 ‘거룩한 공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회는 ‘공적인 일을 위한 모임’이나 종교 회의를 뜻하므로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2세 아이들 즉 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부모를 따라 장로교회에 가는데 주일마다 예배 때에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니 이 아이들의 영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나 교회에게 왜 우리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5세기의 <로마 교회 구 신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교회(The Holy Church)’를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세기의 <개정 신조>에는 거기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로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소문자’(catholic)로 쓰인 경우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보편적인’ 혹은 ‘전 우주적인’(Universal)이므로 ‘카톨릭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도신경에서처럼 ‘카톨릭’이라는 말이 ‘대문자’(Catholic)로 쓰이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므로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거룩할까요? 지상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과연 거룩할까요? 물론 재림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하겠지만 신조를 암송하는 당사자는 현재 자신이 속한 교회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사도신경에는 ‘카톨릭’을 반영하여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 천주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4.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성인들의 통공)

개신교의 사도신경의 표현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성도’(聖徒) 즉 ‘세인트’(saints)라고 합니다(고전1:2 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saints)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엡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saints)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빌1:1)

성경의 정의와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죽은 카톨릭 교회의 특정 인물을 신앙적 영웅인 ‘성인’(saint)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성경적 의미의 참 세인트 즉 ‘성도’(saint)를 배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자들을 시성함으로써 즉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덕행의 길을 닦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히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교회 안에 강력히 작용하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고 그 신자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과 전구자로 세워 줌으로써 그들의 희망을 복돋아 준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교회헌장 40 ; 48-51항, 제1편 p.322 #828]

사탄이 로마 종교를 이용하여 성취한 가장 악독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의 성도 말살입니다. 종교는 금욕주의, 고행 등을 통해 도를 닦음으로써 자기 구속을 시도합니다. 로마 종교의 성자들의 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성자 개념이란 결국 모두가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한 인간 중심 주의와 남이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해 낸 인간 자랑입니다. 사탄은 로마 종교를 통해 수많은 인간 성자(?)들을 양산해 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흐리게 해 왔습니다.

사탄은 모조품 로마 종교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인류를 속이기 위해 벨기에의 ‘제수이트들’ — 예수회 사제들 — 인 불란디스트 파를 동원하여 17-20세기에 이르는 약 3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 성자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악타 썬토룸>(Acta Sanctourum)을 편찬하였습니다. 전 유럽에서 일어난 제수이트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은 벨기에의 앤트워프, 브뤼셀 등지에서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순교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현시대 기독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인용하는 로마 카톨릭 종교 성자들 - 어거스틴, 프란시스 등 - 의 전기란 거의 모두가 이 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통’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성인 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리적 근거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과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이 같은 교류를 명백히 인식한 지상 여정의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대단한 신심으로 ‘죽은 이들을 기억하였다’, ‘죽은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장하고도 경건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교회헌장 50항).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intercession, 중보)를 효과 있게 할 수도 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 제1편 p.364 #958]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인은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후에야 특별 심의를 거쳐서 서품 되는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탄의 속임수로서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런 성인들이 공덕을 넘치도록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과 위의 ‘거룩한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이 동상이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 저리로서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면서도 ‘저리로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곳’을 가리키는 ‘저리’에다 ‘으로부터’를 뜻하는 조사 ‘로서’가 붙어서 이루어진 옛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신 그 하늘 바로 거기로부터 다시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6. 사도신경은 충분하지 못하다

사도신경은 위에 있는 것처럼 교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중요 교리들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강조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으나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약시대 율법에 틀에 갇혀 있는 전통적 카톨릭 교회 유산에 얽전히 순복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마치 다 동일한 성도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외적인 신조의 암송은 결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넣을 수 없습니다.

7. 종교 통합의 매개체

최근 들어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WCC 등을 통해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쓰기 위한 공동 번역 성경이 나왔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일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의 차동엽 신부는 사도신경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인하여 가히 수천만이 피를 흘렸고 그 덕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며, 내가 살도록 해 주는 힘이며, 내게 설렘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희망이다. 나는 그것을 외출 줄 알았지만 몰랐다. 명색이 공인된 신학도인 내가 그랬으니 신자들은 오죽하랴. 그래서 글을 쓰는 내내 깨달음이며 회개였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보물이다. 여기에는 교파도 없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별도 없다. 그리스도교에 속한 모든 이들은 적어도 세 가지 보물을 공유한다. 그 첫째가 ‘성경’, 둘째가 ‘주기도문’, 셋째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 속에 금맥이 있다.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사도신경에 감춰놓으셨다.

또한 인천교구장인 최기산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젖줄이다. 이것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이 잉태되고 성장되고 유지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하늘 밥이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사도신경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연합을 위한 매개체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천주교회와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며 사도신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천주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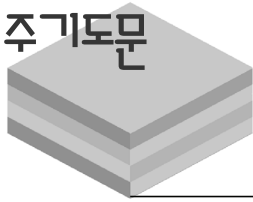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일부를 짧게 표현한 신앙고백문이지만 몇몇 부분에서 치명적인 로마 카톨릭주의의 비성경적 교리가 많이 가미되었으므로 주 예수님의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암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를 맞아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신경이 이를 위한 매개체로 쓰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여기에 어떤 가치를 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신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전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해도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고 인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것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덕분에 믿음이 자랐다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을 무조건 수준 낮은 사람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회는 뿌리가 천주교회이므로 언젠가는 종교 통합의 미명 하에 다시 천주교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에게 천주교회의 실체를 바로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이 직접 순교하면서 몸으로 세운 교회, 바로 이 기독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진리를 알려야겠습니다.¹¹⁾

11)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마6:9-13).

Lord's pray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 (1)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 또는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 예배를 마칠 때(목사가 있는 교회의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마침)
- (2)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등 기도회 성격의 예배를 마칠 때
- (3)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 등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교역자가 지도하는 교회 학교의 예배를 마칠 때(전도사나 교육 전도사가 지도하는 교회 학교의 예배라도 마치는 시간에 목사가 와서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음)
- (4) 가정 예배를 마칠 때
- (5) 교회의 각 기관에서 회의를 마칠 때
- (6) 기타 주로 공예배 외의 예배나 집회 또는 모임을 마칠 때

이처럼 주기도문은 주로 예배를 마칠 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목사가 없을 때 축도 대신 암송하기도 하며 목사가 있어도 예배의 성격에 따라 주기도문 암송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가 참여하지 않은 예배를 끝날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에 축도와 비슷한 영적/물적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

다. 개신교회와 달리 자유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와 주기도문 암송에 따른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배경

‘주님의 기도’(Lord's prayer)는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대로 형식에 가득한 위선적인 기도를 늘 반복해서 암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 관행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샘플 기도를 주셨습니다.

⁵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⁶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⁷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⁸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마 6:5-8).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샘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오용

근본적으로 이교도들은 7절에 있듯이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면 자기들의 신이 기도를 잘 들어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제외한 이방 종교의 중, 신부, 수녀 등이 묵주를 들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교도들의 특징이며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관행에 빠져 있었으므로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모임에서든지 끝날 때에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외우는 것은 주님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는 주장도 이교도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즉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쓸데없는 반복 기도를 지겨워하십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이 주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여전히 주기도문을 글자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무슨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지 단순히 암기한 말들을 암송하지 않습니다(빌4:6-7).

미국의 교회들 중에 주기도문을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인 뒤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주기도문 암송을 강요한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규례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문 암송 관행은 먼저 천주교회를 통해 중국에 전달되었고 그 뒤에 한국의 개신교회에도 전달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도

천주교회는 기도에 대해 무어라 말할까요?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 봅시다.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곧 기도하자면 먼저 기도하려는 원의가 있어야 한다.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살아 있는 전승인 성전(聖傳)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 제4편 p.903 #2650]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 인용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한 기도의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시3:4).

오 주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시30:2).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시62:8).

로마 카톨릭주의의 기도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에 쓰여 있는 단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교도들이 하는 행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방법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마6:7).

둘째,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살아 있는 전승인 성전(聖傳)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교리 문답서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카톨릭 교회가 있어야만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 있기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시라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창20:17).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민11:2).

성경의 성도들은 카톨릭 교회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발생적인 감정의 표현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에 박힌 듯이 주기도문 같은 것을 암송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진심어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교리적 문제

1. 율법적 구문

주기도문에는 신약시대 구원의 교리와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¹²⁾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절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주님이 무엇을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미 없이 외우다가는 연약한 지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 51편을 사랑하여

12) 우리말 성경에는 '빛진 자들이 '죄 지은 자들' 혹은 '잘못한 자들'로 되어 있으나 '빛진 자들이 맞는다.

외운다고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책망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참회의 심경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11절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개역성경은 이것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국내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담은 복음성가가 유행하므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통해 주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가는 일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구약시대이나 가능하지 신약시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신자 내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해병대면 영원히 해병대!”라는 구호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해병대가 성경에서 이런 구호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신자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면서 해매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구절도 사실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미국 침례 교회 성도들과 자유교회 성도들은 결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2. 천주교 주기도문과 개신교 주기도문의 차이

천주교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없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 이유는 카톨릭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된 바티칸 사본의 본문이 신약시대 다수 성도들이 사용한 본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각주를 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고대 사본에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개역성경이 말하는 그 고대 사본이 바로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신자들은 이 부분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 원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므로 그냥 괄호를 쳐서 중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주신 것입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3. ‘대개’의 문제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대개’를 넣어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교인들은 빼 채 암송합니다.

그럼 ‘대개’를 넣어야 맞을까요, 아니면 빼야 맞을까요? 이에 앞서서 더 큰 문제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호티’라는 그리스어 접속사 - 영어로는 for - 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개’로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1930년대에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때에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중국어 성경에서 ‘大概’ 혹은 ‘大蓋’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 번역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개’는 ‘대체로’ 혹은 ‘대략’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성경도 ‘以’ 또는 ‘因爲’로 번역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경우 1936년 신약성경에는 ‘대개’로 썼다가 그 뒤 그 번역이 원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대체로’라는 뜻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아직도 ‘대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다

그냥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천국’(Heaven)이 아닙니다.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서 ‘하늘’(Heaven)로 번역되었습니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 4:17) 등에 나오는 천국은 원래 ‘하늘의 왕국’이며 이것은 결코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 즉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여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어 번역처럼 ‘천국’으로 번역하여 교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마4:17). 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습니다(마27:37).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 상속 언약 즉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막1:1, 14)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습니다(마4:17).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단2:44).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부했고(마23:37-39)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전달되었습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롬11: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메시아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고(눅2:30-34; 38)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에 잠겼지만(눅24:21)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행 1:6)

이때에 그분께서는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고(행1:7) 이에 그들은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행3:19-26).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회개에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파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왕국의 회복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 세우려 했던 하늘의 왕국은 그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위엄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은 성경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누가복음 17장 20-21절 등을 인용하며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입니다.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그 결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기도문은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 유대인들에게 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유대인들이 간구해야 함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이런 기본적인 교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용어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의 모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결정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외에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등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금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샘플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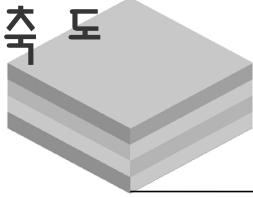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잘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암송해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며 또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말이지 우리가 암송하는 특정한 형태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개신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바르게 행하면 좋겠습니다. 즉 의미 없이 예배나 모임의 끝에 주기도문을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우지 않는 분들도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자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구절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자체를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용서와 긍휼을 베푸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아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처지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진리로서 잘 인도해야 합니다.

신약 교회의 초기부터 자유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에게 경배하며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다만 예배 때마다 끝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일은 반복하는 말로 암송 기도를 하지 말라는 주기도문 제정의 목적에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배에서는 암송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마6:7-8).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의 맨 끝에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성도들을 향해 복을 기원하는 축도를 합니다. 보통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키 어려운 영원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세계만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개신교회에서 축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심지어 설교는 듣지 못해도 축도는 꼭 받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도 역시 천주교회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만의 특징이며 자유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기도를 목사가 예배 때에 한 적이 없습니다.

축도의 유래

장로교회의 신학자인 정장복 교수는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이며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축도의 유래와 행위자 그리고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¹³⁾

개신교 예배 순서의 끝 부분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심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降福 宣言-축도)이라는 순서가 있다.

축도의 유래를 보면, 구약시대에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준 후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사역이다(민6:24-26). 이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활발히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주는 선물'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는 사실을 알리는

13) <http://www.cyworld.com/hiswill2003/3622174>

것으로 본다. 실제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손을 올려 복을 주시고(막10:16)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눅24:50).

사도들에게 이르러서는 축도의 내용을 일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구체화하여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고후13:14; 롬15:5-6; 엡6:23-24; 살전5:23; 살후3:16, 18; 히13:20-21 등이다.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축도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의 감독과 교부들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도적 전통으로 예배의 결론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주후 363년의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이단들의 축도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예배 순서로서의 축도를 존엄한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후기의 신학자들은 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사로 이해하였다.

축도의 자세는 역사적으로 두 형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손을 드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긋는 것이었다.

중세의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의 구교(천주교)에서는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하고 강복 선언이라 칭하면서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의 상징적인 행위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였기에 축도를 더욱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하였고, 그 정신은 현대의 세계 개혁신교회에서 계승되어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 교수가 잘 정리해 주었듯이 개신교회의 축도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주교 사제의 강복 선언으로 이어졌고 개신교회를 세운 루터, 칼빈 등이 개신교회 안에 이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상관없는 자유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축도를 하지 않았습시다. 다만 천주교 사제들과 개신교 목회자들만 축도를 합니다.

개신교 축도의 용어 문제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장의 전통을 물려받아 축도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목사들의 축도 용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특히 축도 끝의 ‘있을지어다’에 대해서는 개신교회 안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도는 고후13:14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후속사이며 문안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마다 기록되었으며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실수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있을지어다’로 축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요, 내면에서는 권위

의식이 가득 찬 발상이다. 현 사회에서는 대통령에게도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계층 간의 간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간격을 더 조성하여 목사와 신도들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발상을 하는 것은 신도들에게 ‘있을지어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고후13:14 본문대로 목사가 주문 외우듯 한다면 축복 기도의 참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서 분별하여야 할 것은 고후13:14는 어디까지나 축복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축복문을 목사만 전용한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 같이 그 본문도 목사의 ‘축도 전용문’이므로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빼놓고 읽어야 한다는 이론이나 또는 그 본문을 이용하여 신도 누구나 축도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목사들(특히 젊은층)의 권위 의식의 문제이다. 목사의 권위는 제도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정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로서, 진정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희생과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소유할 때 해결이 된다. 축도를 ‘축원하옵나이다’ 또는 ‘뵙니다’로 한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00년의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에 이미 토착된 목사의 축도의 말미어는 국문학적으로 손색이 없고 이미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도 사용된 ‘뵙니다’로 하여야 한다. ‘뵙니다’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뜻이라고 국문학적으로 해석된 단어이다. 또한 청소년과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뵙니다’로 함이 가하다고 할 것이다.

축도의 실제 문제

개신교 목사들이 축도를 자신들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목사의 ‘축복권’과 ‘저주권’이라는 개념이 은밀히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 교육과 목회 사역을 통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기록들을 근거로 자기들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 수 있고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 목사의 직무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로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입니다. 신약시대의 목사에게는 결코 하나님께 명령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능력도 권위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저주할 수 있는 특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고후1:24).

¹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²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³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⁴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벧전5:1-4).

기독교의 목사(Pastor)는 천주교의 사제(Priest)나 구약시대 유대교의 제사장(Priest)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동등한 형제로서 다만 양 떼를 이끄는 목양자의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입니다. 초대 교회가 설립된 지 채 6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니콜라당이 생겨났고 계시록은 이에 대해 우리 주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계2:6).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계2:15).¹⁴⁾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입니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Priest)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가 감독이나 장로로 교회를 치리함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경향은 개신교회 안에 늘 있어 왔고 그래서 이들은 목사(Pastor)라는 호칭을 지존자(Reverend)라는 호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사용하는 ‘레버런드’(Reverend)라는 호칭은 하나님 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111:9).

‘지존자’ 즉 ‘레버런드’란 단어는 라틴어 ‘레베르’(revere)에서 온 것으로 15세기에 처음으로 존경의 호칭으로 영국의 성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칭에서 변형된 호칭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The Reverend’, ‘The Very Reverend’, ‘The Most Reverend’, 그리고 ‘The Right Reverend’ 등.

이 호칭들은 다 ‘가장 지존하신 분’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 스펀전(C. H. Spurgeo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언행이 정말로 내가 그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길 원한다. 만일 하나님의 종인 내가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호칭 즉 ‘Reverend’를 도둑질해서 붙이거나 천주교

14)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개역성경은 여기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를 삭제하였음.

사제의 로만 칼라를 하거나 성직자처럼 보이는 가운을 입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아침의 호칭들을 반대하시면서 제자들끼리 겸손하게 평등하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고위 성직자들의 가식적인 권위를 마땅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대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종교 통합을 주도하며 사람들을 마귀의 제물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악한 제도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향해 설교의 왕자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스펀전 목사는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수6:26)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으로, 노력의 안내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것처럼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죄악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사려 깊게 그러나 담대하게 경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조 때에 로마 교회가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한다. 사제들이 올빼미처럼 햇빛을 싫어하므로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온 땅에 빛을 전파해야만 한다.

로마 교회에 독과 해가 되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전한 복음 책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가? 한때 루터는 "마귀는 거위 깃털 펜을 싫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성령님의 복으로 기록된 책들이 마귀의 왕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도 충분한 체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중형무진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

어느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

다음의 글은 어느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목사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용기 있게 이런 글을 쓰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목사들로 인한 반발 심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뒤집어 본다면 목사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직무에는 그것에 합당한 더 엄격하고 분명한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직무가 존귀하다고 하여 목사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살아도 되거나 그럴 만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개신교 내에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목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 그런 의식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 하는 것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막으면 모든 것이 막한다고 여깁니다. 노회나 목사들의 조직에서 다른 목사들을 심판하고 책벌할 때에도 진리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이런 일이 생김을 종종 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는 상대가 죄인이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유익을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악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저주는 특히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자주 발생합니다. 한 성도가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물론 성도가 잘못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는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떠나는 성도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은 편치 아니할지라도 목사로서 편안하게 대해 준다면 떠난 성도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설령 돌아오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떠난다고 성도를 저주한다면 근본적으로 목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자신의 소유로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양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강조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양들을 잠시 맡아서 양육하고 꼴을 먹이고 돌보는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결코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관에 문제가 발생하며 목사의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목사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는 의식을 보이기 시작하면 악한 성도들은 심지어 공포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여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양들이 살아나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젖을 짜고 생육하고 번성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면 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서 상한 채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의 양식과 지식과 사랑과 영적 능력을 통하여 양들을 먹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자신에게 예속된 소유물로 본다면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바로 이런 목사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목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직무와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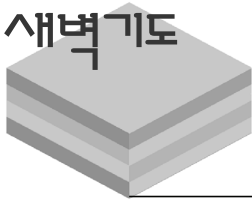
자신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신앙의 담력을 얻은 목사라야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축도에 대한 결론

축도 역시 교회관의 차이에서 발생한 부산물입니다. 신약시대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연장으로 보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자유 독립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나 목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최소한 이 의식의 기원과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¹⁷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²⁰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²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2:17, 20-21).





1년 365일,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교회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셔도 새벽기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유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과연 새벽기도는 어디에서 나왔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유래

교회 역사가들은 길선주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시무하던 때 그분을 중심으로 1905년경부터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¹⁵⁾ 길선주 목사는 하나님을 믿기 전 친구로부터 <천로역정>과 몇 권의 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무엇이 참 도인가?”를 알기 위해 번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빌어보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분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부르듯이 ‘상제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시쯤 하늘에서부터 사방이 진동하는 듯한 큰소리가 나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길선주 목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하며 방성대곡하는 가운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더욱 힘써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그분은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고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 새벽마다 정회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경건하고 간절하고 신비로운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기도는 1907년 평양 부흥 운동과 함께 전국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길선주 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그의 종교 편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구원받기 전에 병을 얻게 되어, 병도 고치고 도(道)도 닦을 겸

15) <http://blog.naver.com/oasis555?Redirect=Log&logNo=>

20014720547

한국 무교 종파 중 하나인 관성교(關聖敎) - 삼국지의 관우를 섬기는 도교의 일종 - 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영적 만족도 얻을 수 없게 되자 21세부터 선도(仙道) 수련에 몰두하였습니다. 전통 무교에서 새벽에 수련시간을 갖던 것에 익숙하였던 그는 기독교로 귀의한 이후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였고 이런 관습을 교인들에게 강제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새벽 3시 반에 수행이 시작되고 승려들은 새벽 예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중시했고 그중에서도 새벽 예불을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교도들의 사머니즘 정서와 한국 민족의 특유한 종교성이 결합하여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새벽기도 전통이 만들어졌음을 누구라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창시자인가?

어떤 이들은 새벽기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기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복음서 기록을 그 근거로 내뱉습니다(막1:35).

그러나 이것은 새벽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도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그분께서 겿세마네에서 하신 것처럼 매일 밤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새벽기도의 확실한 근거라면 왜 지금까지 근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성도들은 한 번도 새벽기도 회로 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즉, 루터, 칼빈, 에드워즈, 스펄전, 횃필드, 웨슬리, 무디, 로이던 존스 같은 분들은 새벽기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을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365일 새벽기도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알지 못하던 관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 중 하나가 ‘새벽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나라 교회에서도 한국의 새벽기도를 배워 시행하는 곳이 있고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역시 선교지에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더 이상 한국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 한국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성도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새벽기도라는 큰 은혜를 특별히 한국 교회에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아 새벽기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더욱이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새벽기도가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눈에 들어 장로나 집사의 직무를 얻기 위해 혹은 자기만족과 열심 - 이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함 - 을 표출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새벽기도를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이 큰 구속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새벽이나 밤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머니즘의 도가니 속에서 바로 이 같은 무지에 의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의 폐해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4시에는 깨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8시까지 출근해야 하므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 곧바로 회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저녁 8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새벽 4시에 깨려면 적어도 10시에는 자야 합니다. 한 집의 가장이 이러면 집안은 누가 돌보니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매일 이런 일을 하려면 온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새벽기도 이후에 잠을 충분히 더 자고 하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피곤하지 않게 잘 가꾸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지내야 합니다. 성경도 읽고 책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인에게는 새벽기도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어느 목사나 성도도 이런 식의 새벽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믿음은 대개 새벽기도회나 매일 교회 가서 일하는 것 같이 몸으로 때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알려는 열망이 없고 산 기도나 새벽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직통으로 무언가를 받으려는 생각이 팽배할 뿐입니다. 머리를 써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등이 영성과 충성의 잣대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큰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주차장 봉사와 새벽기도 참석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단들은 새벽기도를 크게 강조하며 새벽기도를 안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이 출석을 부른다는 말이나 천사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고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정각에 예배드리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까지 새벽기도는 성도의 열심을 측정하는 잣대로 알게 모르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새벽기도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특별새벽기도(특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의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면 말 그대로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심지어 부산에서도 KTX를 타고 서울의 OO 교회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옹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교회의 목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 교회의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다고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특별새벽기도로 유명한 OO 교회에서는 최근에 '2013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강사인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자그마치 5,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는 2013년에만 50만 명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새벽기도를 하니 교회가 부흥된다고 광고하자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300명의 목회자와 신학생이 그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기도 예찬론을 펴며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는 이 교회 목사가 바로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준비한 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새벽기도회에서 외칠까요? 과연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WCC 개최지 확정을 위해 그리고 WCC 총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무지한 성도들을 모아놓고 특별새벽기도를 주관하며 종교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WCC 부산 총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연합한 단체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가 있다. WCC에는 약 5억 900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WCC 총회는 7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29일).

이런 교회에서 특별하고도 특별한 '특새'가 주로 언제 열리는지 아십니까? 수능 시험 전입니다. 이때가 되면 온 나라의 교회들이 특별새벽기도를 하고 절과 암자에서도 중들과 신도들이 지성을 다해 특별새벽기도를 합니다. 지성으로 빌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샴니즘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특별새벽기도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복채 주고 복을 빌어달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의 특별새벽기도는 오순절/은사주의 기복 신앙의 분출구입니다. 종교 통합을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하며 과거에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무지 속에서 성도들을 파멸로 몰아가면서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 성공하려는 목사들의 전유물이 바로 특별새벽기도입니다. 이런 무지의 결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¹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²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³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1-4).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무지 속으로 성도들을 집어넣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엄중한 정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²¹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²²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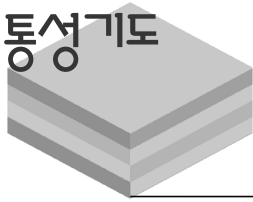
새벽기도에 대한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새벽기도는 무속 신앙에서 나왔음이 확실합니다. 한국 교회 사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모든 분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원 자체는 바르지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있으므로 새벽기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지도자들의 무지와 허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국가를 위해 자식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순진한 성도들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 체제가 유지되고 경제가 부흥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벽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새벽기도가 기복 신앙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전락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기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 모두 귀담아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잠28:9).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여 삼창과 함께 목청이 떠나가라고 앞 다투어 큰소리로 통성기도를 합니다. 사실 새벽기도와 마찬가지로 통성기도도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믿음의 어떤 위인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자유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므로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통성기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통성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통성기도 인식

질문 1: 통성기도 꼭 해야 하나요?

저는 통성기도를 못 하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꾸 통성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의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므로 제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저는 “~옵소서. ~주시고, ~합니다.” 등등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듣고 “아 유치해. 무슨 기도가 그래.”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직 믿음도 없고, 교회에 간 목적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찢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도 되나?”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때 입 밖으로 소리 내어 고백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하면 죄가 되나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많이 편하거든요.

수련회 때도 날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처음 갔는데 사실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한 30분 하다가 그냥 나와서 숙소에 가고 그랬거든요. 옆 사람들은 다 소리 내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별쪼하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마음속으로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내일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가는데 두 시간 동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미칠 듯이 힘든 일도 없고,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기도회 하다가 먼저 나와도 되나요?

기도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는 언니 오빠들은 기도할 때 술술술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마디 하고 생각하고 한 마디 하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대답 1: 통성기도 꼭 해야 되나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통성기도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으로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차츰 기도 시간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통성기도는 그러한 장애물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성기도 할 때 남을 의식하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유창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울며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 눈물을 흘리며 큰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어투로 경건해 보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므로 욕을 쓰거나 속어나 비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기도는 처음에 남들 앞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서투르게 한다고 웃긴 건 아니에요.

질문 2: 통성기도에 관해서

저희 집에서는 엄마만 교회에 다니시고요. 저도 엄마 따라 몇 번 교회 가다가 대학 들어오면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믿어 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CCC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채플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가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련회랑 그런 데 분위기가 참 저랑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간사님이나 선배님들한테 그렇다고 말하면 “민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티를 내지 않고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일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 제목 말하면서 “자, 큰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땅 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딴 사람들 기도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한두 마디 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게 눈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통성기도에 거부감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수련회도 가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추산: 아, 그리고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대답 2: 통성기도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교회 사람들 착하잖아요? 친절하고, 그래서 친해지기 쉽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게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지.

교회 다닌 지도 어느 정도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깊은 줄 알고 있고, 나 자신이 생각해 봐도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못하니 이것 참~ 허하~~ ^^.

기도하는 뜨거운 분위기를 타고 “주여 삼창!”하고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는데 “주여 삼창!” 끝나는 동시에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 같은 말만 계속하고.

이거는요, 쉽게 말해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또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서 그렇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통성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들 의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방식대로 기도하세요. 꾸밈없이요. 저도 그 통성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철야 예배 때 교회 분당 맨 꼭대기 아무도 안 보이는 가장자리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1년 만에 되더라고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글로는 설명 못 하겠어요. ‘성령을 영접한다’라고도 하는데 이걸 때가 없어요.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듣는 중에 제각각 다르니까요. 뭔가 확~~~ 소름이 돋는 기분인데 흠, 뭐라 설명해야 할지. 귀하도 나중에 느껴 보실 거예요. 성령만 영접한다면야~~!!

통성기도에 대한 오해

평범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 및 통성기도가 얼마나 잘못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자들은 사실 순수한 분들이고 이들이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옆의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크게 하자 이들은 크게 위축되고 무언가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줄 알고는 질문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답변자들의 글을 보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려서 오히려 질문자를 더 혼동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자들의 글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신자에게 통성기도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지만 기도의 훈련으로서 좋은 방법이다.
2. 통성기도를 통해 기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3. 통성기도 할 때 남을 의식하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으므로 큰소리를 내서 자기의 기도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4.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다.
5. 통성기도는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6.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다.
7. 통성기도는 열심히 한 1년 연습하면 된다.
8. ‘은혜 받는다’는 것은 찬양하거나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소름이 돋으면서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통성기도도 새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성기도의 유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의 유래

한국에서 길선주 목사의 새벽기도와 함께 초기 부흥 운동에 나타난 특징 중 다른 한 가지는 회중이 동시에 소리 내어 기도를 드리는 통성기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신비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맥쿤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통성기도와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 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통성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회의 울음은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영혼의 넘치는 찬양의 물결 같았다.

이처럼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길선주 목사와 장대현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이에 대하여 좋게 평가를 하였지만 이런 현상은 이교도들의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에서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7:16, 20; 눅6:44). 길선주 목사 등이 주축이 된 평양 부흥 성회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등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무지와 암흑으로 몰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열매는 1906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오순절/은사운동의 열매와 동일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귀의 거짓 영은 ‘아주사 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에 무지와 흑암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질서와 혼동과 무지와 부정함의 근원인 신사도 운동 등을 포함하는 이런 은사 운동은 현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연합의 매개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영의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통성기도입니다. 오순절/은사주의의 거짓 영은 예배 음악 및 질서의 파괴와 기복 신앙을 조장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데 쓰이는 마귀의 도구 중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견해를 피력하고 어떤 결과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 고장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들이 기독교 식 샴머니즘 내지 자기 열심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행위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위선으로 크게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명확히 요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⁵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⁶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6:5-6).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기도와 금식 문제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 7장 21절부터는 그 당시 마귀들을 내쫓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와 예수님의 정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요점은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통성기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례들입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행1:14).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행

2:42).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행4:31).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행12:5, 12).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행13:3).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교리를 배우며 기도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순교하게 되자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 여행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사례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결코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음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왓자지껄 대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²⁶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꺽충 꺽충 뛰더라...²⁸ 그들이 큰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왕상18:26, 28).

이교도들은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많이 해야만 자기들의 신이 듣는 줄 알고 북치고 장구 치며 큰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들의 산물이 많아서 교회가 혼잡하였습니다. 특히 이교도들의 방언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도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²³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²⁸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만나니 ³³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³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를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고전14:23, 32-34).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 통성기도 하는 집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이 모두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성기도 하는 그 모임 자체가 혼동의 도가니가 아닙니까? 더욱이 교회에서 자매들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그 자체를 아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남자들 위에 서서 남자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딤후2:11-15). 그래서 성경은 목사와 집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남자만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딤후3:2, 12).

성경의 기도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욥21:15; 시10:4).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시55:17; 단6:10)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족별로 기도하였으며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 기도하였습니다(느2:4).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왕상8:22) 머리를 숙이거나(창24:26) 무릎을 꿇거나(눅22:41)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마26:39).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므로(겔36:37; 마7:7-11; 빌4:6; 딤후2:1-3; 약1:5)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통성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사30:19).

이 가없는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시34:6).

사실 이런 구절들은 다 개인이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것을 묘사하지 교회가 통성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역성경의 렘33:3을 인용하며 통성기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개역성경)

그러나 이것은 개역성경의 명백한 오역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물론 NIV, NASB, NKJV, RSV 등도 하나같이 이 부분을 “Call unto me.” 즉 “나를 부르라.”로 번역하였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흠정역).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절도 실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사람들,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 오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잠28:9).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습관을 ‘백독일도’(百讀一禱) 즉 “백 번 말씀을 읽고 한 번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통성기도에 대한 결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함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통성기도같이 성도들이 예배 때에 어디서나 동일하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교도들의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정으로 전체 회중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기도 시간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방하지만 이것도 스스로 잘 통제하면서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³³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⁴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전14:33, 40).

구약의 십일조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이 글의 원제목은 '헌금의 원리'입니다.¹⁶⁾ 이 글에서 저는 성경 전체를 살펴봄에 성경이 헌금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헌금을 화제로 삼을 때 대개 십일조가 주요한 이슈가 되므로 특별히 십일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 없이 성경 전체를 살펴본 뒤 성경의 원칙에 따라 우리 양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의 헌금을 드리면 그분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흡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헌금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설교하는 것은 돈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대단히 민감한 일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저의 언급이 다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행여 거침이 될 수도 있기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 글을 통해 전하는 내용은 일단 제가 목회하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지키려는 헌금의 원리라는 것을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일단 끝까지 읽으신 뒤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감사 헌금이나 일반 헌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헌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십일조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교회의 비리나 부조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십일조가 빠짐없이 언급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하에서의 십일조입니다. 과연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런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지,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기에 이 글은 십일조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느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일 년에 서너 차례 말라기서 3장 8-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뒤 집사 형제들이나 다른 리더들이 보는 데서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일렬로 세운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일조 서약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단 성향의 교회에서 행하는 극단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정도는

16) 이 글은 5년 전에 사랑침례교회에서 성도들 교육을 위해 <헌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행한 설교를 정리한 것이며 유튜브에서 같은 제목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아니라 하더라도 목사가 강단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말라기서 3장을 본문으로 택하기만 하면 음성을 높여 성도들을 짓누르곤 하는데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신약성경에 없는 행태입니다.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보여 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균립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사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벧전5:1-4).

목사들의 이 같은 강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십일조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교회나 목사가 억지로 돈을 갈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즉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라는 말씀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헌금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 벌써 “아,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십일조를 안 드려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직접 상관있는 이 글로 인해 우려하시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이 글을 빌미로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려는 분들이 있을 터이므로 미리 저의 견해를 전달하고 글을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는 구약의 십일조 원리와 고린도후서 9장에 들어 있는 헌금의 원리에 따라 ‘성도나 가정이 적어도 자기 수입의 10% 이상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일조 문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빈번히 듣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십일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 회원권도 박탈하는 법이 대형 교단에서 의논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가처분소득의 10%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의무 강조 교단 헌법 개정안 논의 중인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돈 없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 “십일조를 안 내면 교인 자격 박탈이라고? 목회자 자격부터 박탈해라”, “십일조 안 내는 교인은 자격정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십일조

가 자격유지 회비냐?”, “누가 누구의 자격을 박탈하겠단 것인지” 등 반응을 보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최근 가치분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교인 자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교단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인 자격이란 교회 장로, 권사 등에 대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뜻한다. 교단 헌법 개정안은 2013년 9월에 있을 총회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의원들 앞에 개정안을 내놓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회 투표를 한 뒤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국무총회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확정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기독교 장로교의 대표적 중도교단으로 1912년 9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결성하면서 교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전국에 5만여 개의 교회와 200만 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다. 〈머니투데이 2013년 8월 12일, “십일조 안 내면 교인 자격 중지, 누리꾼 ‘목회자 자격부터 박탈’”〉

이에 대해 그 교단에 속한 한 양심적인 목사님은 〈십일조로 교인 권리 중지시키다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헌법 전면 개정 위원회가 목사의 자격이나 징계, 세습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십일조 헌금으로 교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행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른 채 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법과 규율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7월 18일 전국 노회장들을 소집한 공명회에서 이 개정안을 선보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교단 신문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더욱 놀라울 뿐이다. 십일조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목회자가 교인에게 잘 가르치고 행하도록 독려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성경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사랑의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대상29:11). 또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대상29:9).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고후9:7) 그리고 규율이나 형식으로(사1:11-13)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보다는 어떠한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드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들이 십일조(헌금)를 율법이나 제도에 의해 혹은 억지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이다.

둘째, 교회론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교회는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이다. 고와 낙을 같이하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물질로 교회생활을 규제하고 교인 자격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헌금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십일조로 교인을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처음 나온 사람,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사정상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사람, 집안 식구의 반대로 헌금을 못하는 사람, 교회마다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절반 이상의 교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단서나 배경도 없이 6개월 이상 교인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 중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생겨 교단 목사의 한 사람으로 심히 답답하고 괴롭다. 개정위원회에서 98회 때 총회에 알리고 계속 수정,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예 이러한 규율이나 법은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독신문 2013년 8월 19일>

이런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일조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의 십일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십일조에 대해 무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수만 가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을 주므로 십일조에 대해서도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일조는 영어로 ‘타이드’(Tith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십분의 일을 바친다는 뜻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십일조를 드린 사례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사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십분의 일’(a tenth part)을 그[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5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십일조’(tithes)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9 또 나는 ‘십일조’(tithes)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십일조’(tithes)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히7:2-9)

여기서 보듯이, 성경은 전리품이든 무엇이든 십분의 일을 떼는 것을 가리켜 ‘타이드’ 즉 십일조라고 합니다. 십일조는 한자로 ‘十—條’로 표기하기도 하고 세금 조(租)자를 사용하여 ‘十—租’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자의 ‘조’(條)는 가지 ‘조’로서 이는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드린다는 개념(영어로는 히7:2의 ‘a tenth part’)을 나타냅니다. 후자의 세금 ‘조’를 사용할 경우,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신정국가에 사는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에도 독일 같은 국가는 국민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십일조를 공제해 갑니다. 독일 국민은 그 금액을 보낼 교회만 지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십일조의 ‘조’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십일조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 멜기세덱에게 바친 십일조는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BC 1491년경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십일조가 그 신정국가¹⁷⁾에서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강제로 십일조가 부과되었습니다. 율법 수여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었으므로 십일조가 없으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수여 이후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는 국가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나라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십일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이후의 십일조는 강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십일조(十一租)였습니다.

십일조의 종류

십일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부과된 세금으로서 자기 소출의 십분의 일 즉 10%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용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1. 첫째 십일조

레위기 27장 30-3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모든 십일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십일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일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무르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의 십일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17) 신정정치(theocracy):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으로부터 임명받은 대리에 의한 정치·신권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한다. 정치와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心情)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간에 모세가 건설한 신정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의 형태를 보인다.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빈(Jean Calvin)의 제네바 지배, 현대의 그것으로는 혁명 후의 이란 정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장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십계명의 ‘도덕법’(moral law)과 십일조 규정 같은 ‘시민법’(civil law) 그리고 절기와 희생 예물 등에 관한 ‘의식법’(ceremonial law)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으로서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밭과 나무와 짐승의 십분의 일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정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 제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십일조를 세금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십일조 납부가 국민의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정국가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사람은 전체 이스라엘 국민 중에 대략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신정국가의 이스라엘은 지파 별로 활동하였으므로 사실 정확한 인구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중의 하나이므로 전체 이스라엘의 십이분의 일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를 주시고 그 지파들 중에서의 한 지파 즉 레위 지파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도 짓고 그 안의 기구들도 만들고 또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또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짐승의 희생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후대에는 이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필사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만 하여야 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민3:5-8).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열한 지파에게만 상속재산(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상속재산(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고, 열한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일조로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십분의 일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십일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민18:21-2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첫째 십일조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필요를 위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신정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의 명목으로 십분의 일을 드렸습니다. 한편 사무엘기상 8장 15-17절을 보면 후대에는 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일부도 십일조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상속재산의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산물(곡식, 채소, 과일 등)의 십분의 일을 갖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가 이런 소출의 십분의 일을 돈으로 바꿔서 드리려고 하면 (즉 무르려고 하면) 그는 레위기 27장 31절에 있는 대로 원래의 십일조에다가 오분의 일을 더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레위 사람들은 백성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뒤 거기서 십분의 일을 떼어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민18:26). 이런 과정을 통해 구약의 신정정치 체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는 이 십일조가 강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세금이었고 이 십일조는 정확히 모든 소출의 10%였습니다.

2. 둘째 십일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네 자원 헌물과 네 손의 거제 헌물을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라(신12:17-19).

그렇다면 이 십일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먹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아들딸들이 먹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먹는 십일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가족이 먹고 즐거워할 용도로 따로 십일조를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먹을 때는 남종과 여종도 함께해야 하고 레위 사람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일조는 기쁘게 먹고 노는 데 사용되는 십분의 일 몫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고로 고생하는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일 년 동안 수고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성막 예배를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일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22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네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먹고 또 네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네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네게 너무 길어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서 손에 들고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26 네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네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먹고 너와 네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27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신14:22-27).

이 부분에 설명된 십일조는 누가 먹습니까? 그것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즉 신명기 12장과 14장의 십일조는 백성이 먹는 십일조입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분의 일을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수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의 십일조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택하실 곳이 어떤 사람이 사는 데서 너무 멀면 그는 이 십일조를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심지어 독주도 사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부분과 또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구절에만 나타나 있습니다(잠31:6). 이때는 독주까지 먹고 뛰놀아도 하나님이 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행 경비 등도 이 돈에서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이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먹는 십일조입니다.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대단히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해 내십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일 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24:5). 새집을 짓고 봉헌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것의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정혼하고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한 자 등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 의무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신20:5-7).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위해 이 같은 법규를 강제로 부과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많이 거두었으면 10%는 따로 떼어서 너와 네 가족이 먹고 마음대로 놀아라. 부족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십일조와 둘째 십일조를 합치면 총 20퍼센트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둘째 용도의 십일조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적어도 자기 소출의 20%를 십일조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3. 셋째 십일조

그런데 이 두 가지 십일조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8-29).

벤엘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암4:4)¹⁸⁾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직 곤궁함 속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다시 10%를 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런 목적으로 매해 3.3%를 또 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적어도 연 23.33%의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¹⁹⁾ 그렇게 해야 그들은 그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십일조 10%(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및 예배의 필요 만족)
2.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먹고 즐기기 위한 십일조 10%
3. 3년에 한 번씩 나그네와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10%(이것은 연 3.3%로 보면 됨)

따라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신정국가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자기들의 소출에서 매해 평균 23.3 %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최소한의 분량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별도의 헌물이 있었습니다(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다양한 헌물들). 그러므로 십일조와 이런 헌물을 다 따지면 각 가정은 적어도 매해 수입의 30%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8)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로 또 오역하여 수시로 십일조를 바치게 만들었다.

19) 이것은 저자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 역시 <한금의 원리>라는 책(한때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하였으나 지금은 절판됨)에서 같은 것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러한 분량의 십일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시민법(율법)에 따라 출회를 당해 이스라엘 국가 밖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상속재산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한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 땅을 남에게 팔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해 주셨습니다(레25:8-17).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골고루 안배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땅의 소출의 23.3%의 십일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소출의 23.3%를 따로 떼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일조의 변천

이렇게 율법(시민법)에 의해 십일조가 부과된 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약 900년 동안 십일조 규례는 종종 무시되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기하 31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왕의 주도로 백성이 죄를 회개한 뒤 그동안 무시해 오던 십일조를 다시 바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해 주고 각 사람의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 문들에서 섬기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고 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번제 헌물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로 쓸 왕의 몫을 지정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한 한 그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십일조를 가져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는데(대하31:2-6)

시대 산에서의 율법 수여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왕하17:7-8). 그러다가 BC 721년에 먼저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그 뒤 BC 586년에 남 왕국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열 지파 중에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이 데려온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심지어 피가 섞인 혼혈 민족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헛된 예배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잡신도 섬기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왕하17:24-41).

한편 남 왕국 유다는 바빌론 땅에서 목석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뼈저리게 회개한 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조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들은 먼저 성전을 지었고 후에는 느헤미야의 지도로 외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므로 다시 십일조 규례가 복원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출에서 십일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한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쓰게 한 예가 느헤미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족의 처음 난 것과 우리의 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또 우리의 반죽의 첫 열매와 우리의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십일조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돌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돌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느 10:36-39).

그때에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하여 재물과 헌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돌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 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느12:44).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헌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느 13:4-5).

그런데 이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국가의 십일조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는 십일조 규례를 준수하였지만 그가 다시 바빌론으로 되돌아간 사이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되돌아와 보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다. 그래서 그가 이유를 물었더니 백성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밖에 나가 밭을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브다야를 보고의 재무관으로 삼고 또 맛다니아의 손자요,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 다음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더라(느13:10-13).

그래서 그는 치리자들을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들였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이 되돌아왔으니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면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신실한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십일조

이러는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말라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버려두고 자기들 것만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각각 자기 아파트를 먼저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보내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짓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기를 지금이 너희가 날빰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고 샷을 받는 자는 샷을 받아 구멍 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학1:2-8).

그 결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BC 516년경에 하나님의 집이 완공됩니다. 그 뒤 BC 445년경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십일조 제도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3년 정도가 지난 BC 432년경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 유다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이방인들의 '비신정정치' 체제를 맞본 사람들

이 다시 신정정치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말라기의 대언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집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집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네 외모를 용납하겠느냐?...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 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1:6-14).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였기에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⁹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¹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¹¹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¹² 너희가 심기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3:8-12).

자, 여기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9절에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너희 것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너희 것을 해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친히 하늘의 창들을 열고 하늘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현대 목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성도들이 교회로 십일조를 가져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고 안 가져오면 그것은 곧 강도질이요, 저주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나를 시험하라”는 명령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못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꼭 한 구절 바로 말3:10에서 십일조와 연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 내면 복 받는지 못 받는지 먼저 십일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²⁰⁾

우리말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다.

- 그는 내 담력을 시험하여 보려고 밤에 공동묘지에 가도록 했다.
-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기계를 갖고 있는 서른한 명을 차례로 솜씨를 시험하겠다고 말했다.

2.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다.

- 기계를 시험하다.
- 원자탄과 수소탄을 연구해 놓고 마지막 폭발을 시험하는 참나...

3. 사람의 됴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다.

- 하나님은 지금 오빠를 시험하고 계신 거지. 오빠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빠의 마음을 돌려놓게 돼. <네이버 국어사전>

성도들은 대개 말라기 3장의 ‘시험’을 1번이나 3번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시험을 영어로 바꾸면 ‘try’, ‘test’, ‘tempt’ 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떠보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영어로 ‘prove’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3:10은 “온전히 십일조를 바칠 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20) <http://www.keepbible.com>의 우측 상단 구글 검색에서 ‘온전한 십일조인가, 모든 십일조인가?(말3:10)’을 검색해서 참조하기 바란다.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말씀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안의 보편적 원리 즉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려고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편적 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달리 신약시대의 하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엡1:3-7).

신약시대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영원무궁토록 제거되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구약시대에 복 받은 이스라엘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은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그래도 그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물질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성정은 신약시대의 이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결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증험해 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부과되었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보편적인 물질의 복 원리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6:31-34).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말라기 시대에 부과된 십일조 규정을 강제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과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죄를 지은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십일조를 안 하면 교회의 회원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세 천주교 국가들과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비참한 종교 테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심 없이 신실하게 헌금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보편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말라기 말씀을 악용하면서 무언가 교회에 가져다가 쌓아 놓지 않으면 큰 죄악을 짓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사머니즘 정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식의 사머니즘 원리를 성도들에게 부과하려 하기에 성도들이 반발하는 것이지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마땅히 적정 규모의 헌금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다른 십일조

자, 이제까지는 구약시대 중에서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 신정국가로 지내던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부과된 세금의 십일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율법 시대 이전에 십일조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더 나오므로 이제는 이 두 개를 다루려 합니다.

1. 아브라함의 십일조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왕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례를 들면서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므로 지금의 신약시대에도 교회에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은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습다. 여기의 십일조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표시로 바친 것입니다.

물론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 월등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구약의 율법 체계로 되돌아가려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즉 바울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시대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며 결코 구약의 율법 시대로 돌아가지 말 것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게 하였고 또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110:4).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차이를 보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뒤로 한 채 이 사건을 놓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십일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2. 야곱의 십일조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십일조는 야곱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피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만들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창28:13-15).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다음과 같이 조건을 내걸고는 십일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0-22).

비록 이렇게 조건부 약속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그가 십일조를 바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구약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십일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율법 시대에 신정정치 체제 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적어도 자기 수입의 23.3%를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쳤다는 것만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²¹⁾

신약시대의 헌금 원칙 규정

저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십일조 즉 신정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으로서의 십일조는 신약시대에 부과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이미 이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회의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주장을 펴므로써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행15:7-11)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는 곧 구약시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의식법'과 '시민법'의 규정들입니다. 여기에는 할례, 정결례, 음식, 헌물, 십일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자기

21) <http://www.keepbible.com>의 우측 상단 구글 검색에서 '십일조와 그리스도인'을 검색해서 참조하기 바란다.

힘든 이런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시험’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tempt’입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행15:19-20).

이것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레니 십일조니 안식일 준수 등과 같은 율법 시대 이스라엘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로써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도다. 평안할지어다(행 15:28-29).

이처럼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행15:31).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로 인해 그 이후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 시대의 유물인 의식법과 시민법 준수 의무가 영원토록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의 율법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일한 주제로 몸살을 앓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전한 은혜의 복음 즉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단순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6-9).

그러므로 십일조, 주일성수, 입교, 침례(세례), 선행, 직분 등을 구원의 조건이나 복 받는 비결로 내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일조 가르침: 구약과 신약의 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했으니 십일조를

바쳐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마23:23).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들고는 “봐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한국 성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가 언제부터 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Old testament)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New testament)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어 성경책을 보면 한결같이 신약, 구약 할 때의 ‘약’이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임을 알 수 있습니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여심을 뜻합니다. 히브리서에는 ‘Testament’의 뜻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¹⁵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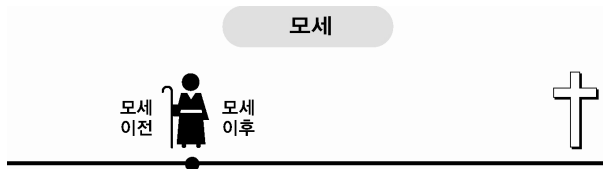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⁶ 상속 언약(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¹⁷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히9:15-17).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잠시 덮여졌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언약을 주시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16-17절은 아주 분명하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 언약(Testament)과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는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다음 그림은 모세의 율법 체계가 십자가까지 이어짐을 보여 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하에서 태어나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셨고 율법을 끝내시면서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4).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롬15:8)

이러므로 개역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언약으로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습니다.

¹⁵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⁶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¹⁷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개역성경 히9:15-17)

이렇게 번역하면 15절의 새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이 도저히 같은 말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는지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공역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15절의 ‘inheritance’ 즉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개역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국개역성경 혹은 미국표준역을 따라 어쩔 수 없이 ‘Testament’를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하려 한 시도는 좋았지만 ‘Testament’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 아닙니다. 우리말 큰 사전으로 가서 ‘유언’을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긴다.”고 하셨단 말입니까? ‘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언약하고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시대’ 즉 신약시대를 여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창건된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님께서서는(계 13:8) 자신의 피로 말미암은 - 직역하면 자신의 피 속에 담겨 있는 -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결코 내가 죽을 때가 되어 몇 마디 유언의 말을 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유언의 1차적 의미가 ‘죽음을 맞이하여 남기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유언에는 1차적으로 ‘상속 언약’이란 뜻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유언’이란 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도 ‘유언’은 ‘Will’이지 ‘Testament’가 아닙니다. 물론 ‘Testament’에도 ‘Will’의 뜻이 있으나 그것은 3차, 4차 의미이며 성경적인 용례로는 결코 ‘Will’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Testament’의 심오한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창조물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을 따라 가장 중요한 단어인 ‘새’ 즉 ‘New’를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언약을 주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개역성경 마26:28).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개역성경 막14:24)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신약(New testament)을 여시는 사역을 멸시하는 번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개역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제사장 체제 하에서 구약이 준수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체제가 유지되려면 성경을 변경하여 '새 상속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주를 받은 부패한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다수 사본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이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을 배제한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없이 학식을 자랑하려는 현대 학자들만이 이런 구절에 '새'(New)라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초를 이해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여전히 구약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매우 미소한 것까지 다 챙겨서 십일조를 드렸지만 십일조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모든 십일조를 바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즉 매우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여덟 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이 저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국가의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신정국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 지도자들이 십일조도 마땅히 바치고 그것보다 더 중대한 마음의 문제도 잘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의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약 15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신약 교회의 규례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성경과 4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에 언급된 십일조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십일조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히브리서밖에 없는데 히브리서의 십일조는 이미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다루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 기록을 통해 십일조는 구약시대의 유물로서 신약시대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면서 율법의 모든 규정 즉 의식법과 시민법의 규례들은 다 폐지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문서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상속재산의 땅을 골고루 배분해 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또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목사(pastor)는 제사장(priest)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신정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신정국가 체제 하에서 조세 성격으로 바치던 십일조 역시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십일조가 사라졌다고 하니 그러면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십일조는 사라졌어도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 데 쓰기 위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형태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이 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유기체(organism)이면서 동시에 조직체(organization)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그것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목회자와 직원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목사들과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건물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이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마10:9-10).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비용을 들여(자비량) 사역한 것을 언급하며 목사들은 다 자비량 목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가 마땅히 사역자들에게 사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고전 9:13-14).

바울은 사실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까 봐 염려가 돼서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나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고전9:12).

즉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기 교회는 박해가 심하였기에 대개 가정에서 모이거나 외딴 지역에서 모였으므로 당연히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 처소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건물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처럼 집 교회만 교회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에서 모이면 건물이 필요 없으니 현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약시대는 장소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느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요4:21-24).

이제는 건물에서 모이느냐, 집에서 모이느냐 혹은 목사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시대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건물에서 모이므로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이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려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많은 경우 이 일에는 사역자와 공간과 프로그램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희생의 헌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구약시대에는 강제적인 조세로서 십일조와 헌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 모든 것이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초기 10여 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하고 성전에 모여 생활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 다른 성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지금도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초기 몇 년 동안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테반 사건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 몇 명을 빼고는 예루살렘의 성전 근방에 모여 있던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산 공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행11:27-30). 이것 역시 자발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구분하여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들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댄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그들의 사역을 도와줄 마가 요한이라는 심부름꾼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비용도 모두 교회가 댔을 것입니다(행13:5).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언제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갈2:10). 특히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빛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롬15:25-27).

여기서 보듯이 어떤 때는 성도들이 육신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14년에 네 군데로 선교사와 목사, 복음 전도자를 보내면서 1,300만 원 이상을 모금하여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였고 또 몇 분에게는 다달이 일정액을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선포와 성경적 신약 교회 확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자발적 헌금의 원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 모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전16:1-2).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형통을 허락하였으면 그는 거기에 맞게 크게 헌금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면 못해도 됩니다. 즉,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던 것처럼 23.3%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세워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의 수입에 비례하게 바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비례 비율이 자기 수입의 10%를 넘어도 되고 다른 사람의 경우는 10%를 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은 믿음의 행위이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떼어 놓는 것이야말로 성도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 성도에게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헌금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과부의 이 렵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 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 렵돈 곧 일 고드란트를 넣으시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12:41-44).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 사역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알므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를 6-7절에서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이 말씀에 따라 신약시대에는 저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교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의 사역자들인 목사들도 말라기서 3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을 인용하여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바치는 헌금에 복을 주십니다. 8-10절에는 이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⁸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⁹ (이것은 기록된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흙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¹⁰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고후9:8-10).

8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잘하면 10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형통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의식주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누릴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밭에 나가 씨를 조금 뿌리고 많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가을 수확 때에 많이 거두려면 봄에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확 때에 하늘에서 받을 보상에 관심을 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재물로도 많이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하늘에서의 보상에 관심을 두고는 왕자의 자리까지 박차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피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히11:24-26).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마6:21).

신약시대 헌금의 기준

저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형통하게 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십일조 폐지와 신약의 헌금의 원리를 알려주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몰라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이기도 하므로 조직체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적정 수준의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적정 수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그림자와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과 건물이 있었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어 내시고 나머지 열한 지파가 그 한 지파를 먹여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적어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를 떼어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실제로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3.3%의 강제적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헌금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고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같이,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등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하려면 그들의 생계와 건물 유지비를 성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도들을 영적인 꼴로 먹이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헌금의 원리를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가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를 드려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성도가 어떤 지역 교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이 되면 적어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드려야 그 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이지 구약시대의 십일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몸에 행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의 자유를 억누르며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고후5:10).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의 신약시대가 구약시대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이해하는 성도라면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강제로 매해 23.3%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 10% 정도를 드리는 것은 어느 면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유난히 율법을 강조하는 장로교가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십일조는 성도의 믿음을 기쁨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십일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으로 여기며 불안 속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드려도 꼭 헌금 봉투에 십일조라고 써서 내야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시대에는 헌금을 비롯한 모든 예배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그런 필요를 느끼고 십일조라고 표기해서 헌금을 내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내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믿고 맹신 차원에서 헌금을 하는 무지한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 사람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한편 십일조를 잘 내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제가 이것을 최소한의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약성경의 헌금의 원리를 들이대며 이런 분들의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먼저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를 살펴보면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십일조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실 성도의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이런 사람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원칙 하에서 십일조 대신 감사 헌금을 하게 합니다. 일반 교회에 가면 헌금 봉투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봉투에는 다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저희 교회에서는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써서 헌금하고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고 헌금합니다. 꼭 십일조라고 써야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분은 그렇게 써서 헌금합니다(다만 그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먼저 하며 그래도 십일조라 표기하기 원하면 더는 간섭하지 않음). 이러한 헌금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목사와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다 우리를 위해 쓰입니다. 건물

임대, 목사와 사역자 사례, 교육, 선교, 구제 등을 위해서 다 쓰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헌금은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는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헌금을 바치는 성도에게 희생의 아픔이 없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어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희생하면서 주님께 바치면 그 헌금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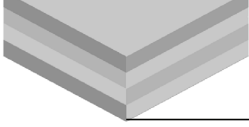
글을 마치면서 목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십일조를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라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믿음으로 실천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양들을 잘 먹이면 양들이 목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목양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설교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잘 전달하려고 연구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먹이기 바랍니다. 목사의 생각과 계획이 성경과 일치함을 성도들이 보면 그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그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이나 십일조 설교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목사와 교회의 모든 필요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례들이 이를 보여 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약성경의 원리대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제 휴거 받은 뒤 목사나 성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서 각 사람이 일일이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가리키며 “저 목사님이 구약 식으로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다 헛것입니다.”라고 증언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특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사명을 받은 목사는 그 자리에서 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서도 목사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나중에 그 심판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후1:13-14).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서 자발적으로 적어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하나님께 희생의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신약교회의 일들이 이 나라에서 흥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천 번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지금 교회마다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자들이 무지한 양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리니라.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합니다. 개역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입니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1:3, 9, 10, 13, 14, 17 등 18 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희생 헌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한 답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 헌물’(sin offering)을 드리고, 법을 어기면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을, 자원해서 드리기 원하면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을, 음식을 드리고자 하면 ‘음식 헌물’(meat offering)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개역성경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 예물’, ‘소제’ 등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원 헌물’을 빼고는 모두 ‘헌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를 뭉뚱그려 제사로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속건제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원 헌물’의 경우 개역성경은 레위기 22장 21절과 23절에서 ‘자의로 드리는 예물’ 혹은 ‘낙헌 예물’이라고 해서 헌물의 개념을 살렸는데 사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NIV, NASB 등 부패된 역본들도 모두 ‘헌물’(offering)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례 역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offering’을 제사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강요해서 무지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회개하고 성경을 알아야 이런 무지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 천주교의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요구하는 목사들에게 보내는 경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천 번제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교회 목사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지금, 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번제 헌물을 요구할까요?

기본적으로 너무 소양이 없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너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분야를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제 자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를 읽지 않아 내용을 모른 채 부실하게 가르치면 대번에 인터넷에 학생들의 비판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이런 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르틴 루터, 로이드 존스, 웨슬레, 무디, 스펠전 같은 목사들이 일천 번제 헌물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니골라당입니다(계2: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집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에 그 제사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호4:6-11).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일천 번째가 먹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목사들이 바로 서야 국가와 민족의 해이한 기강도 바로 설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일천 번째, 다니엘 21일 기도, 맥추 헌금 등과 같은 구약의 관습을 실행하려는 니골라당 목사들에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일천 번째를 주장하고 실행하는 천박한 불량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일천 번째는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입니다.

목사 여러분!

제발 같이 각성합시다.

회개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성도들 묶는 일 그만둡시다.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 앞에 설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낮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를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째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호6:1-7).

일천 번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²²⁾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산의 어느 마을에는 산 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 아래에는 작은 계곡이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차가운 계곡물에서 몸을 씻고 절에 들어가서 돌부처 앞에 삼천 배를 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절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천 번 절을 해야 돌부처 눈썹 하나가 끄떡인다고 합니다. 돌로 새긴 눈썹이 움직일 리야 없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면 돌부처도 감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치성을 올려서 부처를 감동시키면, 부처가 자기들의 문제 - 질병, 가난, 염려 등 - 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때 저희 또래 학생들 가운데서는 종이학 천 마리 접기가 유행이었습니다. 큰 유리병을 하나 사서 거기에 작은 색종이로 종이학을 접어서 한 마리 두 마리 모읍니다. 천 마리를 다 모으면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이성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데 씁니다. 그 지극한 정성에 상대방이 감동하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색종이를 접기보다는 꽃집에 가서 장미꽃 백 송이, 천 송이를 주문해서 프리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부처에게 삼천 배를 하는 것이나, 종이학을 천 마리 접어서 건네주는 것이나, 장미꽃 100송이, 1000송이를 바치는 것이나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하는데 곧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상대방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극한 정성이 부처의 눈썹을 움직이고, 여자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정성어린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벌써 십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는 이처럼 사람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종교 행위가 등장했습니다. ‘일천 번제’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종교 의식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이 ‘일천 번제’라는 이름의 헌금에 대해 설명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실 소원이 있으면 먼저 기도 제목을 정하여 헌금 봉투에 적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드리는데 그렇게 천 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일천 번제 헌금 봉투는 맨 위에 제목으로 ‘일천 번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기도 제목(소원)을

22) 이 글은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김문수 목사가 성경지킴이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적는 란, 봉헌자, 금액, 제 () 회(천 번 중에서 몇 번째 헌금인지 표기) 등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천 번제는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 의식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1997년에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2000년 1월 1일이 1,000번째 새벽기도회가 되도록 오늘부터 매일 새벽기도회를 일천 번제로 드리기 시작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요즈음도 일부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 헌금, 일천 번제 새벽기도회, 일천 번제 예배 등의 이름으로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에 매수되거나,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에 감동하시거나, 알팍한 인간의 계산에 맞장구를 쳐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한국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행17:22 인용).²³⁾

이 글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 일천 번제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일천 번 제’를 드렸는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개역)

많은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 천 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일천 번제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것이며 그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일천 번제’라고 했지 ‘일천 번 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일천 + 번제(a thousand burnt o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천 + 번 + 제’(thousand times o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천 번제란, 솔로몬이 한번에 ‘천 마리의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천 번(회수로 1,000 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 번 읽어볼까요?

KJV: And the king went to Gibeon to sacrifice there; for that was the great high place : a thousand burnt offerings did Solomon offer upon that altar.

23)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로 번역하였다.

솔로몬은 제단에 ‘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말하며 천 번의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천’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단수를 가리키는 부정관사 ‘a’가 사용된 것은 천 마리의 희생물이 ‘한번’의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단 한 번 드렸지 천 번씩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

다. 한자로 읽어 볼까요? ‘일천 번제’(一千 燔祭)에서 ‘번제’(燔祭, 태울 번, 제사 제)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 ‘번’(番, 순서 번) + ‘제’(祭), 즉 제 몇 번째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1번제, 제2번제, 제3번제... 제1000번제” 이렇게 헌금봉투를 천 번 채워야 온전한 일천 번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성도들이 흑사라도 역대기하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될까 봐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가르칠 때 역대기하 1장 6절은 안 보여주고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역대기하 1장 6절을 성도들이 읽게 되는 순간 자기들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역: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대하1:6)

흠정역: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 제단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서는 국한문혼용 성경이 없는 성도들이나 영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성도들이라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아예 개역 성경에도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일천 번제란 제사를 천 번이나 드린 것이 아니라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것은 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천 개의 헌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어떤 목사님은 “솔로몬은 재력이 넉넉해서 한꺼번에 천 마리 희생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천 번에 걸쳐 나누어서 할부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무지한 목사요,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주님으로부터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종교를 빙자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종교사기는 당장에 중지되어야 합니다.

2. 솔로몬은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최근 발간된 전병욱 목사의 저서 중에 <하늘을 감동시킨 일천 번제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전병욱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종교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제목 자체가 ‘지성이면 감천’, 즉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동양의 무속 기복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보다는 예배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예배자의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철저히 인본주의 시각에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이 책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책에서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이 책의 제1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최상의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복을 누렸다.

과연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설마 강대국 이스라엘 왕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신다면 고작 희생 짐승 1,000마리가 최상의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못하시겠지요? 그리고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받고 감동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하나님께서 고작 희생물 1,000마리에 감동해서 그 보답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일천 번제와 그분의 지혜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천 번제와 솔로몬의 기도 응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바쳤는가?

하나님께서 가난에 쪼들리고, 굶주려 허덕이던 차에 솔로몬이 한꺼번에 바치는 천 마리의 희생 예물을 받고는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사실 솔로몬과 같은 부자에게는 희생제물 천 마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삼십 고르와 굵은 가루 육십 고르와 살진 소 열 마리와 초장의 소 스무 마리와 양 백 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스슴과 살진 날짐승이 있었더라(왕상4:22-2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식탁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만 하더라도 엄청난

니다.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면,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양이지만, 이는 솔로몬의 하루 식량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 천 마리라고 해 봤자 솔로몬에게는 열흘 치 양식거리도 안 되는데 고작 그 정도를 바친 것으로는 지극한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소유 중에서 최상의 것을 바쳤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많은 가축과 재산과 금과 은이 본래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린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50:9-13)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욥41:11).

다윗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물을 바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대상29:14, 16).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에 사용한 모든 짐승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주께서 수지맞았다며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나 예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이 일천 번제에 감동하여 지혜를 주셨는가?

전병욱 목사를 비롯하여 일천 번제를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을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시40:6-7).

주께서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기에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위 시편을 인용하며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10:8-9).

주님께서서는 분명히 첫째 것(구약의 제사 의식)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약시대에 드리던 일천 번제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입에서 다시 번제를 드리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둘째, 성경에 나오는 번제는 결코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번제 희생은 희생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죄 헌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평 헌물, 범과를 속하기 위한 범법 헌물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헌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목적 없이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소원을 이루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번제를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주장하니 이거야말로 성경에도 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일천 번제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부처 앞에 삼천 배를 해서 부처를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종이학 천 마리나 장미꽃 천 송이로 여러분의 여자 친구를 기쁘게 하고,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천 번제와 같은 종교 의식에 의해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일천 번제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기뻐하시기는커녕 무섭게 진노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서 번제 헌물은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히10:8). 우리는 자랑스럽게 “저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라고 자기 의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사64:6).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삼상15:22). 또한 그런 희생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미6: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만아들,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6:6-8)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일천 번제 의식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율법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에게 그의 소원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천 개의 희생 예물에 감동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며,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천 개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오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대하1:8-9)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사 영원히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삼하7:8-16). 그리고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삼하7:12)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지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생각해내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매(대하1:9-10)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천 번제 예물을 받으셨으니 이제 자기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왕상 3장, 대하 1장) 중 그 어디에서도 일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서도록,

제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이 소원,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왕상3:9-10).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일천 번제 희생물을 받고 기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왕상 3:10).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12:2).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요일5:14).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일천 번제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3. 왜 한국 교회에는 일천 번제가 잘 먹히는가?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은 일천 번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제도가 주는 금전적 매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는 “일천 번제만 잘 가르쳐 놓으면 삼년간 놀고먹을 수 있다.”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역시 일천 번제와 같은 독특한 종교 의식에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첫 번째, 둘째 번째, 셋째 번째... 이렇게 해서 천 번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일천 번제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짓된 교훈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일천 번제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거나 그르거나, 교회로서는 그 헌금 제도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일천 번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바치는 헌금은 동전이 아니라 지폐이고, 그 금액은 적게는 천 원, 많게는 만 원이나 그 이상입니다. 그제 천 원으로 천 번이면 백만 원이고, 만 원짜리로 천 번이면 천만 원이 됩니다. 일천 번제 드리는 사람이 10명이나 100명이나에 따라 교회 수입은 적게는 천만 원, 많으면 1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마다할 리가 없지요. 더구나 은행처럼 다달이 적립한 금액을 나중에 원리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꼬박꼬박 할부로 납입하는 현금을 받기만 하면 되니 이처럼 좋은 현금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과 부흥사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종교를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일천 번제 현금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둘째, 일천 번제라는 종교 의식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국인의 심성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계속 시도하면 아무리 굳은 사람의 마음도 녹이듯이, 부처건 성황신이건 지극한 정성으로 치성을 올리면 하늘도 감복하기 마련이라고 믿는 것이 한국인의 종교성 - 보다 정확히 말해서 미신 -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속히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것이 우리의 끈기와 정성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 번의 끈질긴 현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돌부처나 고목 앞에 삼천 배 올리는 사람의 미신적 종교행위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셋째, 지난 번 글에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맙긴 하지만 뭔가 허전해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기가 해 놓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공허감을 느낍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대언자 엘리사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주저 없이 실행에 옮겼을 텐데,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서는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내 행위, 내 공로를 더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너무 쉽게 푹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기도해서 어렵게 얻어낸 것이다. 일천 번제를 드려서 겨우 힘들게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이 대견스럽게 생각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집니다. 결국 이런 종교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물건 같으며,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넷째, 일천 번제가 호응을 받는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함께 나누는 연보가 언제부터인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과 축복을 관련지어 가르칩니다. “헌금을 드려야 복 받는다”, “야곱처럼 별미 헌금을 바쳐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십일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여하신다” 등과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복 받으라는 기복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천 번제도 이런 기복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적어야지, 거기에 자기 소원(좋은 말로 미화하면 기도 제목)을 왜 적습니까? 하나님이 뇌물로 헌금 받아먹고 소원 들어주는 분입니까? 이거야말로 무당 앞에서 복채를 쌓아놓고 소원을 비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현재 한국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천 번제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배금주의에 물든 종교인들이 치성 드리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미신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왜 일천 번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이 일천 번제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천 번제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어긋난 기복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대가로 해서 사람들과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데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나 부자의 기도나 모두 들으십니다. 또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시50:9-13)

목회자/부흥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축복받으려거든 ‘별미’(평상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특별한 예물)를 갖다 바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창27:4).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게 하신 것이지 야곱이 별미를 바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려서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한 마디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행8:20).

하나님을 일천 번제라는 뇌물로 매수하여 복을 받으려는 행위는 분명히 기복 신앙이요, 그 재물과 함께 멸망 받을 짓입니다.

둘째로, 일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종교 의식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복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을 불러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화를 물리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액땀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처럼 일천 번제 역시 내가 하나님께 천 번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복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1:17).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욥22:21).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물론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천 번제와 같은 종교 의식으로, 나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내 행위로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이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대신에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일천 번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해하게 만드는 종교 의식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천 번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천 마리의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가르침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나 있을까,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려면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감복시키려거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거든, 천 번의 예물이나 천 번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 번째의 예물이 도착하기까지 기도응답을 보류하고 있을 만큼 매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21:2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막11:24).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9-1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15:7).

우리가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일천 번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7:11)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금 봉투를 하나씩 세어보면서 자기 자녀들이 천 번을 채웠나 못 채웠나를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을 해 줄까 말까 망설이는 엄격하고 인색하신 절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결코 인색하거나 냉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천 번제로 드리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히4:16).

천 번, 아니 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일천 번제를 바치라고 하거나, 그런 인간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5.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천 번제라는 종교 의식은 교회의 수입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복 신앙과 인간적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모독하는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양적인 무속 사상은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쌓아올리는 자기 의를 더러운 옷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입니다.

일천 번제와 같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부언의 글: 토착화를 조심하라

한국 교회의 많은 전통은 토착화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천 번째에서 보듯이 사실 많은 경우 토착화는 사머니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김재욱 형제님의 글과 함께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외부의 문물이나 풍습이 자국의 토양에 맞게 뿌리내리는 것을 ‘토착화’라고 하고, 이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면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토착화 신앙은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온 기독교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할 수만은 없으니 성경도 번역하고 찬송가도 만들고 용어와 새로운 문화들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의 토착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신앙의 바탕 위에 기독교를 세우고 거기에 맞추는 일은 무척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시장경제 등의 말처럼 종교도 우리 식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적 사고에 맞는 것들로 방향이 기울입니다. 예컨대 신약보다는 구약의 방식이 웬지 사람들의 종교심이나 한국적 정서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21세기의 선민’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가 계시된 성경과 기독교의 구조를 값싼 신비주의로만 보는 경향이 이런 토양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만들고, 목회자들과 일부 교인들이 40일 금식기도처럼 무리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예배와 다니엘에게 배운(?) 세 이레 기도회, 40일 새벽기도,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솔로몬의 천 마리 양 번제(왕상 3:4)를 ‘일천 번제’로 번역해 생긴 1,000일간의 새벽기도 등 많은 것들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 종교생활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부담을 주었으며,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종교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자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런 특징들은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문화의 단면이며 내면의 성숙보다는 외적인 위선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인의 양반문화, 체면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은 한국식 종교 문화와 충돌해 생긴 토착화 현상입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 빌고 비는 마음, 정성이 부족하면 부정 타니 100일에서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 복채가 적어 신령님이 노하시면 큰일 나니 두둑이 바치면 그 만큼 복 받는다는 문화와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가 개인 스스로 성불하는 수도의 종교인데 한국에 와서 호국불교가 되고, 석가모니가 나라를 지켜 줄 만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른 지식보다 정성이 차야 되고, 성경보다는 은사나 직통계시가 화끈하게 느낌이 와서 좋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열정적인 신앙의 에너지와 순박함도 있어서, 순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와 록 음악



알파코스, G12 프로그램을 도입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²⁴⁾ 열린 예배의 기원은 미국이며 빈야드 운동을 하는 존 워버의 교회와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 빌 하이블스의 윌로우크릭 교회,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등 이머징 처치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교회들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머징 처치²⁵⁾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열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이머징 처치 운동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라는 비판이 미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파코스와 G12 비전을 하는 교회들은 기존의 전통 예배를 전부 열린 예배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파코스와 G12 자체가 능력 예배, 능력 찬양, 능력 전도를 강조하면서 전통 예배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조차도 빈야드 교회의 예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G12는 특히 예배의 강렬성을 요구하는데 이 G12의 열린 예배에 참석하면서 본인이 느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²⁶⁾

1. 열린 예배에서는 기존의 찬송가 대신 현대 크리스천 뮤직(CCM)을 주로 사용한다. 그 곡의 근원이 어디이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 붙으면 찬양 곡의 자격이 된다.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들이 퍼뜨린 곡과 뉴에이지 음악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만든 찬양도 있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CCM은

24) 이 글의 열린 예배 관련 부분은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않는 성도의 글로서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보기>의 부록 3에서 가져왔다.

25) 이머징(emerging) 교회 역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머징 교회는 이제 막 출현하고 있고 워낙 다양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머징 처치들은 서구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에 적응하려는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진정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보기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오순절 은사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고 이것의 기원 역시 카톨릭 신비주의로 보고 있다. 이머징 교회의 특징은 바로 록 음악(Rock music)의 열린 예배이다.

26) 크리스천 록음악의 현실에 대해서는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서 'G12 Revolution'라고 치면 G12 집회 현장을 볼 수 있고 'Cover The Earth - Christian Music Body Worship Dance'를 치면 한국의 경배와 찬양 집회 현장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인가에 대해 검증을 받지도 않았고 여과되지도 않았다.

2. 열린 예배에서의 가장 주된 악기는 신디사이저와 드럼과 전자 기타이다. 이런 악기들을 통해 들려지는 전자화된 음이 예배자를 리드한다.
3. 열린 예배의 단상은 찬양 리더와 악기 연주자들에 의하여 점령된다.
4. 열린 예배에서는 악단 연주의 볼륨을 극단적으로 올려서 일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청각적 감성적 질서를 마비시키고 소리으로써 예배자를 제압한다.
5. 일단 제압당한 예배자는 감정을 흥분시키는 인도자의 제스처와 열광하게 하는 멘트에 동화되며 감정의 최고조 상태에 빠진다. 인도자와 찬양 리더들은 예배자들이 동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한다.
6. 예배자는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균형 있게 갖추어진 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여유도 없이 오로지 감정적 흥기 상태로만 이입되어 버리며 예배당은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
7. 예배자들이 찬양을 통하여 감정적이 되며 클라이맥스 시점이 되면 설교자는 연극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예배 의장도 갖추지 않은 복장으로 단상에 등장하여 설교를 시작한다.
8. 감정이 흥기된 예배자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별로 대수로운 말도 아닌데) “아멘, 아멘!”하게 되어 있다.
9. 설교자는 대부분 예배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행복추구주의 설교를 한다. 간혹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삶에 대하여 설교하더라도 이 설교는 말로 그칠 뿐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설교자는 예배자를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이끌어간다.
10. 설교자는 단상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단상을 휘저으며 걸어 다니며 강한 제스처까지 보이며 설교를 한다.
11. 이러한 열린 예배를 통하여 목사의 카리스마는 자동으로 높여진다.
12. 이러한 열린 예배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온 교회의 교인에게 젖어들게 되면 수양회나 저녁 예배 등을 통하여 은사주의 사역을 실시한다. 이때 방언을 하도록 격려하고, 쓰러뜨림과 각종 표적 보임, 축사 등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목사의 카리스마는 더욱 고양되며 그의 위상은 높아지고 능력과 병 고침을 행하는 목사로 소문이 나며 군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된다.

참으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까요? 열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고양된 상황 또는 열광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경건한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선별되고 거룩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급부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에서는 찬양도 세속화되지 않은 것을 선별해야 하며 정숙한 마음과 몸가짐이 필요하고 또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무 기뻐서 춤추고

싫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날뿔 수 있을까요? 날뿔고 싶도록 기쁘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 놓고 싶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내는 소리와 악기의 소리도 조심스럽고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자리의 노래처럼 볼륨을 최고로 올려놓고 고성방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날뿔지 않아도 통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드리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외양적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 예배 처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가 도취되어 일방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리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예배자는 요란한 신디사이저와 전자 기타와 드럼의 귀가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소리에 자극되고 예배 시간에는 조작된 감정만이 난무합니다. 여기에 설교는 예배자의 비위를 맞추는 세속적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런 열린 예배를 하면 당장 성도들이 꼬이고 교회는 성장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분위기가 정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의 연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복음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 채 늘 영적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열광과 은사주의를 찾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학 측면에서도 열린 예배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는 닫힌 예배라는 말입니다. 또 이 용어는 사람을 예배를 닫고 여는 주체로 보므로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임의로 닫거나 열수 없습니다.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이들은 열린 예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배를 흥미 있게 바꾸어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참석한 자들이 흥분하게 하여 결국 회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유도한다.

이런 생각에는 예배를 사람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구도자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자 예배가 따로 있고 구도자 예배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 성경의 모든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열린 예배란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마케팅 기술과 전략에 따른 세상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목회는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가 가르친 교회 성장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안절부절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확신 있게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전통을 배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통을 낡았으며 생산성과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전통을 권위주의의 산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부정하고 좋은 전통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인류학과 같은 것을 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이 열린 예배의 밑에 깔린 사상입니다.

끝으로 열린 예배는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록카페 등에서 에너지를 분출시키듯이 열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가사만 ‘예수, 주여...’ 등을 쓰면서 리듬과 템포는 세상의 록, 랩 음악과 동일한 음악 속에서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갈5:16-17).

한국 교회들은 지금 시급히, 너무도 시급히 이 열린 예배의 정체에 대하여 논하고 성도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행태를 시정해야 합니다.

음악은 중립인가?²⁷⁾

현대 크리스천 뮤직(CCM) 지지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음악이 가치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CCM 지지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래 안에 적합한 기독교적인 단어들만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도 다 수용해야 한다. 가사와 메시지는 록 음악이든 랩 음악이든 혹은 크리스천 메탈이나 다른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합당한 말들만 있으면 그 음악은 수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사용된 음악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예배를 고상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힘도 없고 예배를 훼손하는 힘도 없다. 음악은 가치중립 상태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좋은 가사가 더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음악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크리스천 락 음악의 신조’로 알려진 ‘교리 고백서’를 탄생시켰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악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어떤 악기나 음악의 형식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음악적 표현의 다양성은 단지 하늘에 계신

27) 이 글은 2013년 1월에 젤러(George Zeller)가 기록한 “Is Music Neutral?”이라는 제목의 음악 보고서이다. <http://www.middletownbiblechurch.org/lo-church/musicneu.pdf>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창조력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증거라는 것 등의 사실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1988년 11월, 12쪽>

대형교회 목사로 열린 예배 및 구도자 예배 등을 주창하는 릭 워렌 역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악의 형식들이 ‘좋은 음악’ 혹은 ‘나쁜 음악’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발상을 거부한다.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는 당신의 배경과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음악은 음계들과 리듬들의 배열에 불과하다. 하나의 노래를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사이다. 사실 ‘크리스천 음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크리스천 가사’가 있을 뿐이다. 만일 내가 당신을 위해 가사가 전혀 없는 곡을 연주했다면 당신은 그것이 크리스천 노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Purpose Driven Church), 릭 워렌 281쪽>

수년 전에 <아주 많은 소리들>(So Many Voices)이라는 제목의 매우 훌륭한 크리스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아주 무서운 무덤가의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외투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비석들 사이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둡고 희미했습니다. 배경음악은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의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음악은 계속 절정으로 이끌어갔고 보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어떤 공포가 일어나 모두 비명을 지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그 ‘악당’이 자기 모자를 벗고 “부”라고 말하자 큰 웃음을 일으키면서 아무 악의 없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같은 무덤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두운 무덤들 사이를 걷고 있는 모자 쓴 남자의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회전목마를 탈 때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축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음악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관객들은 무덤들 사이에서 걷고 있는 같은 남자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영화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영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희극적이었습니다. 음악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은 매우 유쾌해했습니다. 비록 영상은 무서웠을지라도 음성의 메시지가 영상보다 더 강력했고 두려움의 모든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상황을 바꾼 것은 단 한 가지 즉 음악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가사가 없을지라도 음악은 스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젊었을 때 저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음악 자체가 저로 하여금 격렬한 폭풍우를 보게 해 주었고 폭풍 뒤에는 평안함을 준다는 것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사 없이 오직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존 필립 수자의 행진곡을 연주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애국적인 행진을 떠올리며 그 박자에 맞춰 행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파워가 있으므로 다윗은 사울 왕의 광기를 음악으로 진정시킬 수 있었고 그의 혼에 평온을 가져다주었습니다(삼상16장).

과연 누가 음악은 중립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다 압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눅16:8). 이 시대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압니다. 그들은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치과 병원은 안정을 주기 위해 편안한 배경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직원은 치과에서의 경험이 불편한 경험이 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소유주들 역시 고객들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며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선정하는 데 큰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가사가 없다고 해도 음악 자체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쇼핑센터의 소유주들 역시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선정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해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음악(보통 매우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하여 팬들이 경기에 흥분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열광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야구 게임에서 왈츠풍의 음악이나 자장가와 같은 느린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게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을 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한 음악이 있고 장례식장 매니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은 가사가 없어도 메시지를 담고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록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음악이 중립이라면 장례식장에서 록 음악을 든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려고 할 때에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음악과 좋지 않은 음악이 있습니다. 평온하고 사람을 진정시키는 자장가 음악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려 할 때에 어머니는 시끄럽고 자극적인 음악을 사용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음악은 아이를 깨워야 할 때에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란 찬송가는 가사를 부르지 않아도 노래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휴식을 주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애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날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만일 당신이 위의 가사를 수자의 행진곡이나 비틀즈의 빠른 곡에 삽입한다면 그 곡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음악 안에 무드가 들어 있으며 좋은 작곡자는 가사의 메시지가 음악과 잘 맞도록 바른 무드를 제공하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찬송가는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행진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기를 가지고 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위의 가사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에 넣어 노래해 보십시오. 음악의 분위기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와 맞지 않음을 누구라도 곧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분위기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광고주들 역시 음악이 중립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딱 맞는 종류의 음악만이 사람의 관심을 불러오며 물건을 파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음악이 듣는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음악이 중립이라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들은 때로 배경음악으로 옛날 찬송가를 틀어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히 선호하는 음악의 형식이 있어서 그것만이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활동들이 증진되고 그 결과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록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헨드릭스(Jimmy Hendricks)는 록 음악이 최면을 거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잠재의식 속으로 선포할 수 있다. <Life, 1969년 10월 3일, 74쪽>

‘Mothers of Invention’의 록 스타 자파(Frank Zappa)는 다음처럼 말하였습니다.

록 음악은 섹스이다. 큰 비트는 몸의 리듬과 맞아 떨어진다. <Life, 1968년 6월 28일>

그룹 KISS의 시몬스(Gene Simmons)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록 음악의 모든 것이다. 100 메가톤급의 폭탄과 함께하는 섹스 그리고 그 비트! <Entertainment Tonight, ABC, 1987년 12월 10일>

록 밴드 블룬디의 여가수 해리(Debbie Harry)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록앤롤은 모두 섹스이다. 100퍼센트 섹스. <The Truth about Rock, 30쪽, 스티브

피터스에 의해 인용됨)

또한 블룸(Allan Bloom)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록 음악은 오직 한 가지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곧 성적 욕구에 대한 야만적인 욕정이다. 그것은 사랑도 애로스도 아닌 성숙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성적 욕구이다.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73쪽)

비록 이런 인용 글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록 음악의 초기 시절에 음악인들이 록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중립이라면 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고드윈(Jeff Godwin)은 이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음악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 록 스타/팬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 즉 아무도 중립적인 음악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실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록 음악도 듣지 않고 연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 보기 바란다. 크리스천 록 팬들은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바로 금단 증상을 보일 것이다. 록 음악은 마약이다! 믿지 않는가? 당신이 30일 동안 그것 없이 지낼 수 있는지 보기 바란다. (*What's Wrong with Christian Rock?*, 38쪽)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음악이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배경음악이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음악을 사용하여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조장하고 이로써 당신이 의자 가장자리에 겨우 앉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으로 청중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군사적인 승리를 묘사하고자 할 때 그들은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압니다. 영화 속에 비극이나 죽음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어떤 음악을 사용할지 잘 압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즐겁게 노는 경우에도 그들은 어떤 음악을 사용할지 잘 압니다.

긴장과 위협에는 긴박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낭만적인 음악을 필요로 합니다. 음악의 악보는 대본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그들은 음악으로 어떤 종류의 분위기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 중립이지 않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있다는 것과 또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 즉 잘못 선택된 음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 여러 면에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을 압니다.

큰 갈채를 받은 영화들 중에서 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영화는 거의 없으며 주목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록 음악은 반복적이며 끌어당기는 박자로 긴장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대부분의 좋은 영화 제작자들이 찾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록 음악은 부도덕, 혼외 성관계, 마약에 의한 찬미와 권위에 대항 같은 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록 음악의 형식은 부도덕한 것으로 영구히 낙인이 찍혔다. 가사를 바꾸고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록 음악곡을 짓는다 해도 그런 치욕을 없앨 수는 없다. <나는 왜 CCM 운동을 그만두었는가? (Why I Left the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Movement), 루카리니(Dan Lucarini), 91쪽>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하신 분에게 경배할 때에도 거기에 맞는 음악과 맞지 않는 음악이 있습니다. 예배에 바른 감정과 분위기를 주는 음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습니다. 경외감을 일으키는 음악,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악, 예배의 품위에 맞는 음악이 있습니다. 장엄한 음악은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록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하여야 하는데 어떤 음악은 이런 목적에 합당하고 어떤 음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기록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시29:2).

가사에 상관없이 록 음악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저는 두 가지만 보여 드리려 합니다.

1. 록 음악의 리듬은 인간의 감각적 본성에 호소하면서 음악을 지배한다

모든 음악은 리듬이 있고 리듬은 음악의 필요한 요소입니다. ‘민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는 소절마다 네 박자라는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에 쓰인 리듬은 곡의 가사와 음악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록 음악에서는 비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갈록(Frank Garlock)은 전형적인 록 그룹이 만드는 소리의 70%가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차 옆에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에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몰아치는 비트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신은 어떻게 차 안에 앉아서 그런 리듬을 고음으로 들으며 견딜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2. 록 음악의 리듬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곡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니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곡에는 리듬이 있고 가장 큰 강조점은 각 소절의 첫째 박자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첫째 줄에서 각 소절의 첫 글자인 ‘예’, ‘하’, ‘거’, ‘말’에 강조를 둠을 뜻합니다. 또한 둘째 줄 강조점은 각 소절의 셋째 박자에 있습니다(‘사’, ‘은’, ‘하’, ‘세’). 이런 종류의 리듬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록 음악의 리듬은 박자가 맞지 않고 각 소절의 둘째 및 넷째 박자에 강한 드럼 비트를 두게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리듬은 사람의 감각적인 본성에 호소하며 육신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록 음악이 연주되면 사람들의 몸은 그 음악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크리스천 음악은 바른 감정을 일으켜서 바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클라우드(David Cloud)는 경건한 음악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크리스천 음악은 혼동이 없고 평안해야 한다(고전14:33).

크리스천 음악은 불화가 없고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전14:40).

크리스천 음악은 거칠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딤후2:24).

크리스천 음악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거룩함을 말해야 한다(벧전1:15).

크리스천 음악은 반항에 대해 말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말해야 한다(약 4:7).

크리스천 음악은 교만을 말하지 않고 겸손을 말해야 한다(벧전5:5).

크리스천 음악은 감각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해야 한다(벧전2:5).

크리스천 음악은 질문을 하지 않고 답을 공급해야 한다(요일5:20).

크리스천 음악은 오락을 말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고전14:26).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지금 살아 계신 분이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열린 예배나 경배와 찬양 같이 모임 자체가 록 음악회로 변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몰아치는 드럼 비트로 정글 음악을 연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위엄 있고 존귀하며 경배할 만한 방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1:17).

성도의 새 노래²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음악, 그분을 공경하는 음악,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음악’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위해 적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갈1:4). 그분께서 우리를 값어치 받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고전6:19-20). 그분께서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고(롬1:1) 복음의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으로부터 끌어올리셨으며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셨습니다.

28) 이 글은 젤러(George Zeller)의 “God Hath Put a New Song in My Mouth.”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christia/newsong.htm>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렁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도다 (시40:1-3).

새 노래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옛 노래와는 매우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새 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벤전2:7)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고전1:18; 2:14). 그들이 아는 유일한 노래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롬8:7-8) 따라서 그들의 노래들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1969년에 미들타운성경교회에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에 주목했던 일들 중 하나는 음악이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는 기량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도 공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찬송들을, 진정으로 의미를 느끼며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불렀습니다. 그 노래들은 종교적 의식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싶어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매우 현란하고 전문적인 음악을 중시하는 많은 교회들도 다녀봤으나 그런 데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아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노랫소리가 부족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어떤 배우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억양과 흠 없는 탁월한 연기로 유창하게 그 시편을 암송하였습니다. 그의 암송은 정말로 우수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같은 시편을 암송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분의 암송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은 시편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은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혼의 목자를 진정으로 안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경건하게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며 주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시편과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을 부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영적인 성도가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전7:5)를 들으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과 함께 있습니다. 옛 노래는 이미 죽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골3:1-4).

우리 시대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인 CCM을 정글 음악의 빠르고 강한 리듬의 북소리와 그런 감각적이고 육적인 음악적 스타일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음악, 영적인 음악,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연주하는 음악은 교회들 안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반석을 존경하는 대신 우리는 반석같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또 다른 악한 반석인 록(반석) 음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 스펀전 목사님이 시무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마스터즈 목사(Peter Masters)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리스천 예배를 지배하던 원리는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의 차이 혹은 거룩함과 신성모독적인 것의 차이 혹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문화’는 기쁨을 반영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경배의 정신을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세상은 상반된 기준과 생활양식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세상의 잔치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많은 의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영적인 경배는 대중오락의 범주 안에서 품위가 떨어진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되며 더더욱 그런 것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거룩한 영역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이고 신성모독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인 음악을 도입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범법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세상의 육적 스타일과 오락적 가치를 수용한 교회가 길 잃은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성관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마약 그리고 감정적인 잔치 파티와 같은 다른 문화들과 분명하게 연관된 어떤 것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크리스천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과 두 개의 적대적인 왕국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서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존재함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적인 세상과 그것의 용어들의 도움을 거부하였고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오락이나 감정주의의 육신적 ‘권능’이 아닌 영적인 권능 즉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권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도들의 확신을 시험하기라도 하려는 것 마냥 히피와 세상적인 크리스천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고 처음에 대부분의 보수주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것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지도자들이 사역 현장에서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즉시 새로운 현상들을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런 세상적인 운동은 여러 교회들과 또 주님의 기준 앞에 땅의 모든 매력들을 내려놓았던 국제적 복음주의자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신실한 성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방 세계의 문화로부터 나와 주님을 위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음식을 다시 먹으려고 하다가 - 물론 우리는 음식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가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 구별된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과 분리의 법칙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어떤 경우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은 것들을 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은 전통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믿어 왔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는 순수함과 분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들을 항상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죄를 짓는 행위와 육적 생활방식을 찬양하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육적인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거절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류의 복음주의자들은 항상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열등한 영적 체질을 지닌 목사나 지도자들은 이런 좋은 전통의 교회들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들을 세속적인 곳에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타락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한다면,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거나 그것을 위해 싸움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면 아래에 구멍이 나서 배를 고칠 수 없다면 돛들을 바로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목사들이 여전히 육적인 소리가 넘치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려 한다 해도 부패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의 말을 잠재우고 결국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길로 내려가 타락한 많은 교회들은 이미 성경적인 기준들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현저하게 천박하

고 실속이 없는 형태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오락하는 자들의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에 대한 많은 증언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몇 군데 대형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때로 숫자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신실함과 영성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CCM 등을 동원한 현대식 예배로 넘어간 교회들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가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과 영적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문제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음악의 기준 등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불경건한 틀 안으로 몰아넣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12:2).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혼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입에 놀라운 노래를 두셨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믿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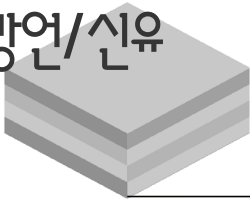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네. <시편 40편에 근거하여 지은 노래>

교회에서 록 음악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록 음악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록 음악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록 음악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록 음악으로 그들을 교회에 잡아 두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질문이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답을 안다면).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 3:15)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이며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소망은 ‘칭의의 교리’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합니다(골1:23).²⁹⁾

물론 베드로의 이 명령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목사나 집사 혹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종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과 그 이후의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지침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벧후3:18).

어떤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구실로 삼아 이런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는 목양 사역의 일부로 각종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목사를 찾아가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딤후2:15). 곁에 성경을 잘 아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번은 어떤 부인이 논쟁이 되는 교리 하나를 갖고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는 그 교리에 대해 근본주의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해 놓은 건전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건 여러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말해 주세요. 그럼 믿겠어요!” 그 부인의 이런 태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보고 상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요한1서 2장 27절 말씀은 멋진 균형을 이룹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엡4:11)

29) 이 글은 ‘비은사주의 크리스천이 은사주의에 대해 묻는 12가지 질문’에 대해 가우어 (David M. Gower)가 답변한 것으로 미국 ‘Regular Baptist Press’에서 나온 소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참고로 이 책자에서 ‘은사란 단순히 ‘선물’(gift)을 뜻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요일 2:27).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일 년 전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더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을 잘 알며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오순절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 역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타언어(방언)와 병 고침, 기적 같은 표적 선물들(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60년 캘리포니아 주의 밴누이스(Van Nuys)에서 시작된 은사 운동(Charismatic movement)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최근의 깁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그리스도인의 19%가량(2,900만 명)이 자신을 은사주의자 혹은 오순절주의자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가히 놀랄 만한 성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21%가 뱍티스트 즉 침례 성도라고 합니다.

은사 운동은 주요 프로테스탄트 진영뿐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초교파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교리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표적이나 이적을 중심으로 모임에 각자가 믿는 것 -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 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공식 회원 명부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은사만을 강조하면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공부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종종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 -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교회 등 - 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체험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자, 여기 여러 은사주의자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대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비은사주의자들에게 묻는 12가지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속죄의 한 부분인 병 고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성격의 질문입니다. ‘비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채찍에 맞아야겠군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분명히 그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맞은 채찍질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채찍을 맞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처럼 병 고침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가서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에 나오는 ‘고침’은 현대적 의미에서 신체의 치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성령님께서 육체적 치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1. 성경 전체에서 ‘고침’(healing)이란 단어는 여러 종류의 고침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이 말은 주로 육체적인 치유를 나타내었지만 상심한 마음을 달래는 데도 쓰였고(눅4:18), 마귀의 억압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쓰였으며(행10:38), 죄로 물든 행실을 버리는 것을 뜻할 때도(히12:13)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할 때에도 ‘고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벰전2:24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이 잘 아는 ‘stick’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뜻도 여러 가지입니다: 빗자루, 성냥개비, 접착제 등. 그런데 ‘stick’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 중에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오직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고침’이라는 단어의 뜻도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벰전2:24의 전체 내용이나 또 전후 문맥에 육체적 치료를 연상하게 하는 단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죄가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고침’이 영적 치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신(벰전2:22-23)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2:21). 이러한 높은 수준의 행실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2:24). 우리는 습관적인 죄들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 잃은(구원받지 못한)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2:25).

이처럼 여기의 ‘고침’(healing)은 영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의 ‘고침’을 단순히 육적 치료로 본다면 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3.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마지막 구 즉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와 25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유명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 5-6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의 '고침'은 분명히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우리의 범법과 불법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 관계가 고쳐졌습니다. 이러한 죄의 치유는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이사야서 1장). 대언자 이사야가 다른 환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많고 불법에 싸여 있었으며 주님께서 버리신 악인들로 가득했습니다(1:4). 하나님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붉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사1:5-6).

비록 환자의 병세가 신체 부위별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 환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의사로, 그것도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주님을 꾸짖자 주님은 자신이 왕진 나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진 나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마9:10-30). 이 위대한 의사께서는 정확한 때에 영적 치료를 끝내시며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즉 손수 내리신 처방에 필요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보통 이 두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이 둘을 성령님의 단일 사역으로 봅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늘 그 차이를 묻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공부해 보면 이 둘이 단순히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을 살펴보고 나중에 둘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성경에 11번 나옵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11:16; 롬6:1-7; 고전12:13; 갈3:26-28; 엡4:5; 골2:12). 이 중의 다섯 구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구절은 다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사실은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 줍니다. 과거 시제도 한번 있는데(행

11:16) 이 경우는 오순절 사건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구절은 서신서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성경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성령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baptisma)라는 단어는 원래 ‘잠그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말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놓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 침례는 이 일이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잠기게’(baptize) 하십니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분께서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기심을 뜻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잠기게’(baptize)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를 ‘예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로 옮기심을 뜻합니다(마16:18). 이 두 측면을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요1:3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향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 12:13).

2.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나는가?

신약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필수불가결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갈3:26-29).

3. 성령 침례는 누가 받는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이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고전12:13).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

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육적인 모습이 공공연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4.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도 없고 심지어 그 같은 언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왜 성령 침례에 대해 이리 조용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복된 소유라면 굳이 그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성령 충만은 신약성경에 15번 등장합니다(눅1:15, 41, 67; 4:1; 행2:4; 4:8, 31; 6:3, 5; 7:55; 9:17; 11:24; 13:9, 52; 엡5:18). 이 중의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상령으로 충만하라.

첫째로, 이 말씀은 ‘충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의 통치하에 있거나’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술에 취하는 것(술에 지배당하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비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 줍니다. ‘충만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시 쓰자면 ‘계속해서 충만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살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때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모든 믿는 이에게 적용됩니다. ‘충만하라’는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다수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명령은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충만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불순종하여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롬 6:13; 12:1)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갈5:16)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질문 3: 성령 침례가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일어나는 둘째 축복이 아니라면 왜 초대 교회 사도들은 구원받은 후 몇 년 뒤에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은 대개 성령 침례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 침례가 그 뒤에 -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음 -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늦추어진 성령 침례를 ‘둘째 축복’(Second blessing)이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축복에 버금갈 만큼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에 나온 사도들의 예는 소위 ‘둘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침례를 증명해 준다고 알려진 사례입니다.

성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았고 심지어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성령 침례를 경험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은 우리 역시 사도들의 이런 예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추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을 전후하여 하나님의 치리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오순절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날에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성령님의 활동은 이미 지상에 있었고, 성령님은 심지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분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몇몇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성령님의 내주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우리가 속한 교회 시대만의 독특한 일이며 바로 오순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우주적이고 영속적인 내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시대에서 성령님은 성막을 만드는 자나 재판관, 대언자(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내주는 그들의 구원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이 맡은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맡은바 소임을 마치지 못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면 자연히 성령님도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봅시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은 사울 안에 거하셨습니다(삼상10:1-6).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주님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삼상16:14). 이 때문에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은 뒤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시51:11). 다윗의 기도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기도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 안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롬8:9).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도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셨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요7:3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직전에 성령님의 사역이 곧 바뀌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혹은 그들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께서 곧 제자들 안에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7).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이 있는 뒤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7-14).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행11:15, 17).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안에 영구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 교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엡1:22-23). 이 신약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개개인을 교회 안으로 옮기는 일도 교회가 존재한 후에야 시작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즉 성령 침례는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실 때 성령 침례를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행1장). 오순절이 오기 10일 전만 해도 성령 침례는 현실이 아닌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 몇 년이 - 혹은 최소한 몇 달이 - 지난 후의 일인데 이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 침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에 태어나신 것처럼 율법 시대에 태어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받았습니다(갈4: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 침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침례는 사도들에게 '둘째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 침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 얻게 되는 복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체험은 독특한 것인데 이는 그들이 두 세대 사이의 과도기

(변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예를 오순절 이후의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4: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분명히 ‘타언어(방언)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교회에서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 타언어(방언)를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방언의 선물(은사)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사주의 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우리는 옹졸하다거나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타언어 선물(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언어들도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고전13:8)

이 구절은 타언어(방언)가 그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언어가 언제 그칠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먼저 고전13:8-12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일시적 선물이 나옵니다: 대언, 방언, 지식. 분명히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없어지다’(done away)와 ‘사라지다’(vanish away)라는 두 동사의 성격상 대언과 지식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란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과 지식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완전한 것’을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보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만일 그 ‘완전한 것’이 신약성경이라면 대언과 지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9절은 부분적으로 알고 대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10절은 완전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란 틀림없이 부분적인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은 지식과 대언의 완성 혹은 완성된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일시적 선물인 타언어(방언)에 대해 살펴봅시다. 타언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치다’라는 동사의 성격상 우리는 타언어가 앞에 나온 대언이나 지식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끝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언어란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그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타언어는 스스로 그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완전한 것이 임하므로 대언과 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리되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을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이해한다면 타언어는 그 이전에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타언어가 그분께서 재림하시

때가 아니라 재림 이전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22절은 타언어가 종결된 시기를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타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인용구인 고전14:21을 보면 외국어 즉 타언어 표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개념을 고린도전서에도 적용한다면 그 당시의 타언어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후 70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부으셨으며 이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타언어는 주후 70년에, 지식과 대언은 주후 90년에 각각의 목적을 다 이루고 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타언어가 몇몇 극단적 무리들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2세기나 그 이후의 정통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도 타언어(방언)는 없습니다(딤후3장; 딤후1장). 만일 타언어가 교회 시대 전체에 필요한 선물이었다면 양 무리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을 이끄는 자들은 마땅히 이 선물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현시대에도 타언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설교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은 타언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타언어가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사)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타언어 전부가 금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타언어는 그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타언어는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금하신 명령(마10:5-6) 만큼이나 교회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언어 선물이 그쳤고 그것의 1차 목적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는 목적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성경적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사주의 관행을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게 되면 늘 불화가 생깁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실행의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데(히13:8)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보통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분께서 어제(사도시대) 하신 방식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유지하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타언어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선물을 주실 것이고 이 일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이 위대한 진리를 간과한 것일까요?

은사주의자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언어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타언어가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13:8). 타언어가 그치는 정확한 때를 결정하는 데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타언어가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타언어를 일시적 선물로 말하기에 타언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은사주의자들이 ‘어제’를 사도시대로만 국한한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왕과 대언자(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가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거나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이 구절을 타언어 선물과 연관 지으려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제’에서 구약시대를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타언어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역사를 보더라도 타언어는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해도 될 것입니다. “‘어제’가 그렇게 최근에 사도시대에 시작되었다면 ‘영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겠네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제의 시작을 사도행전으로 보고 그 이전의 인류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우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할 뿐이며, 그분과 관련된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분의 활동이나 일하시는 방식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타언어(방언)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 변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변화 정도가 심해 다른 경영 방식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경영 방식을 우리는 보통 ‘세대’(dispensation) 혹은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순절 이전에는 타언어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륜/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타언어 선물을 주셨고 바로 그때에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나 인간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늘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항상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앞뒤 문맥에 맞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보다 월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 체계를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의 '레위 제사장 체계'로 되돌아가려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와 일관성을 모두 발견합니다. 좋은 변화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구약) 대신에 '새롭고 좋은 언약'(신약)을 가져오셨다는 것이고, 나쁜 변화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일관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9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13:7-9).

7절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들 이전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던 이전 지도자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다음 세대가 따라야 할 본을 남기고 갔습니다. 8절은 히브리 성도들이 항상 신실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배들은 갔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이분은 현시대의 우리들도 계속해서 신실해야 하는 근거와 명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은 적용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합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피하고 참된 은혜의 교리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 음식(희생으로 성별된 음식물)을 먹는 의식이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을 세워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경영 방식(경륜/세대)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레위 사람들의 의식, 레위의 제사장 체계는 더 이상 신약시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지속하는 것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본질, 위치는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변치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본질이며 그분의 역사와 경영 방식까지 똑같은 것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 타언어 선물이 영구히 지속됨을 보증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6: 당신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신중하게 연구한 결과, 현시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타언어(방언)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인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그들의 타언어는 항상 영문 모를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타언어 선물이란 화자가 전에 알지 못하던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흔히 하늘의 언어 혹은 천사의 언어라 불리는 황홀경의 소리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타언어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흔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타언어(방언)는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하늘의 언어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비은사주의자들은 타언어(방언)가 늘 사람의 언어였고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의 대부분의 언사(utterance)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타언어'(방언: tongues)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글로싸'(glossa)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입안에 있는 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특별한 지역의 사투리, 즉 방언; 이해할 수 없는 말'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글로싸'(glossa)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각각에 대한 바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타언어로 말한 예가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옵니다. 첫째 예는 2장 4-11절의 오순절 사건인데 여기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 줍니다. 6, 8절을 보면 이 다른 언어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놀란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것은 어찌 된 일이나?" 바로 이 구절 다음에 그들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명단이 등장하며 거기 나오는 각 지역은 곧 그 지역의 언어를 보여 줍니다. 바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나머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 줍니다.

둘째 예는 10장 44-48절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기적도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하게 "타언어로 말하다."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의 경우처럼 사람의 언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성령님의 선물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위에' 임하였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45절). 베드로는 이때 일어난 일을 보고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이미 경험한 오순절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오순절 날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같이 하시더라...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행11:15, 17)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인격체이지 타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친히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한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선물이인 타언어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셋째 예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기적도 “그들이 타언어로 말하더라.”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타언어가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처럼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2-14장에도 타언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타언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타언어는 하늘의 언어나 혹은 천사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사도행전처럼 그것이 분명히 타언어임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타언어를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전체 본문을 읽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더욱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사람의 언어라는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가까운 동역자요, 친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두루 그와 동행했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나오며 사도행전 2장의 타언어 사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보다 약 5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타언어(방언)란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동일한 선물을 가리켰음이 확실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타언어라는 말이 생소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기에 그 선물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굳이 타언어(방언)가 타 지역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독자들이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동역자였다는 점, 바울의 기록 시기가 먼저라는 점, 그리고 누가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언어(unknown tongue)를 구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묘사할 때 바울이 쓴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고린도전서의 타언어가 사람의 말임을 강력히 뒷받침해 줍니다. ‘분명한 소리’(distinct sounds, 고전14:7-11)라는 개념도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인용과 14장 22절의 설명을 볼 때 고린도전서의 타언어가 사람의 말임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타언어(방언) 선물이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 과정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언어’(unknown tongue)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오순절/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언어도 아니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타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7: 당신이 마귀들을 내쫓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마귀들을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들을 강력히 그리고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귀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엑소시즘’ 즉 ‘축사’(逐邪)라 불리는 ‘마귀 쫓아내는 일’이 세인들의 관심을 끈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와 그의 졸병들인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습니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 즉 성경에서 종종 마귀라 불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을 도우며 선한 천사들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우리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움’을 믿습니다(엡6:12).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귀를 쫓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일시적 표적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침의 중심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마귀를 쫓아야 한다는 명령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은 그 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가 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체험해야지 사도들의 체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들을 쫓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들이 가르친 바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루는 구절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과연 마귀를 쫓아내는 것(축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방어용 갑옷과 사탄과 마귀들을 패주시킬 공격용 무기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악한 영들의 적수가 못됩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은 힘과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위로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려는 것은 마치 장난감 총으로 전함을 침몰시키려는 어린이의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도다.”(요일4:4)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귀들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마귀들이 능력이 크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 머무르며 힘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욘의 경우처럼). 따라서 우리는 마귀들이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는 자들 모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둘째 단계는 마귀들의 공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아는 전략가는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벧전5:8). 성경은 마귀의 공격이 간교하며 속임수로 가득하다고 말하며(엡6:11) 동시에 우리가 사탄의 이런 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고후 2:11). 그렇다면 이 같은 전략이 무엇일까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원하며 또한 말씀보다 이성을 우위에 놓기를 원합니다(창3장).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자연적인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이용합니다(욘기; 히2:14). 악한 세력들은 악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며(요13:2) 이것을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어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도록 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육’ 혹은 ‘육신’(flesh)을 사용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뒤에도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죽을 때나 휴거를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흔히 ‘육’이라고 부릅니다. ‘육’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며, 마귀는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마귀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우리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을 통해 사탄이 우리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고후2:6-11; 엡 4:25-29).

주님의 군사라면 마귀가 이런 경로로 자신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경계하며 대항할 준비를 갖추는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영향력을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다루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12절은 바로 이것을 위한 병기고를 보여 줍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거짓말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장(戰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사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채 전장에 들어가 악을 파악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듣고 전장에 들어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의심을 심습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공격은 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적을 간파하고 적의 사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공격 무기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도망갑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율환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마귀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질문 8: 왜 기적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님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의 선물(은사)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은사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자신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치리하기 위해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자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도 움직이십니다. 이런 변칙적인 운행 방식은 보통 기적이라 불립니다. 즉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흔히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흔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니라 일상사가 될 테니까요.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도는 과정을 기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기적들이 크게 일어난 세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첫째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둘째 시기는 엘리야와 초기 대언자(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때 주어졌으며 이 시기는 약 1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사도들의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약성경이 주어진 시기였으며 이것은 약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어셔의 연대기’에 따르면 성경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임을 보여 주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이 같은 역사 기간이 옳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들이 크게 발생한 시기는 그중 5% 정도인 320년에 불과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33년간의 지상 생애 동안에 단 3년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점인데 이는 그분의 전체 생애의 9%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곤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곧 사도시대에 주어진 기적의 선물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이 다른 일시적인 목적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먼저 기적은 ‘능력 있는 일들’(mighty works)로 불리는데 이것은 기적 행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이적’(wonders) 즉 ‘놀라운 일’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은 ‘표적’(signs)으로도 불립니다. 이 말은 기적의 첫째 목적 즉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임을 강조해서 보여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만일 기적이 능력 있는 일이나 이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참됨을 보여 주는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난 세 시기가 성경 말씀이 주어진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대변인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내가 표적으로 그들의 말을 확증해 주지 않느냐?”

신약성경은 특히 기적을 표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과 10장 37-38절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고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셨음을 명백하게 확증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실제로 자기가 행한 기적의 권능을 이용하여 입증하려 했습니다(고후12:11-12).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들로 자신들의 증언이 참됨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히2:3-4).

대언자나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 기적의 일차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때 기적의 은사도 그쳤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적의 은사는 초세기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육신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그것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선물을 거두어들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논거는 기적의 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성경은 우리가 기적의 선물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두루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 혹은 선물을 몇몇 특정인에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질문 9: 왜 병 고침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탈 없이 잘 지내도록 몇몇 사람에게 치유(병 고침)의 선물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어떤 특정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고후 12:7-10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병 고침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시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 고침(신유)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수만이 이런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하였습니다. 심지어 몸 전체를 완전히 고치기도 했습니다(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사실 병 고침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는 자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적 능력의 일부입니다(히2:3-4). 그렇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는 고통과 불편함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도 다른 기적들처럼 성경 역사의 어느 특정한 때에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자’(healer)가 이 땅 위에 걸어 다닌 시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극히 짧았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병이 났을 때 찾아가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의 선물을 가진 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에도 병 고침의 선물을 받은 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병 고침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인’ 에바브라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빌2:25-27). 바울은 선교 여행 때 자기와 동행한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하고 아픈 채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딤후4:20).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고 대신 일반적인 처방을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고후12:7-10).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적절한 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병 고침 선물의 일차 목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됩니다. 그것은 곧 아프면 기도하고 의학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아픈 그리스도인은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은 처방으로 기름을 발라야 함을 말합니다. 이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 처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는 의미로 쓰인 그리스어가 메시아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한 ‘크리오’(chrío)가 아니라 몸을 문지르는 것을 뜻하는 ‘알레이포’(alei-pho)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우리가 병 고침의 기적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병 고침의 선물이 교회 시대에 지속된다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확실하게 고쳐지는 것은 실로 내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십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8:23)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영화로운 몸을 주셔서 죄가 육체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병을 잘 고친다고 크게 소문이 난 소위 크리스천 치유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터리 치유사들이 고친다는 질환들은 실제 병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거나 영양 부족 등에 의해 악화된 것입니다. 이런 가짜 치유사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단지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 가령 치유 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 상태가 완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몇몇 질환은 순전히 상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은사주의자들의 치유 사례를 연구해 보면,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실제 상태는 그대로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유사가 귀머거리나 복합골절 환자나 선천성 기형아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경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치유사들 -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등 - 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설사 오늘날 능력의 치유사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치유사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으로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심령술에 빠졌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악한 세력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사탄이 마지막 7년 환난기에 이러한 기적을 크게 행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살후2:9-10; 계13:11-15).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에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고후11:14-15).

병 고침은 표적 선물(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는 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다하자 병 고침의 선물은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예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더라도 병 고침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 관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병 고침의 선물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 기도와 의학적 처방을 의지해야 하며 이것만이 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의 뜻 안에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며 지금도 고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런 선물(은사)을 받아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질문 10: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계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까?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대언 즉 직접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선물(은사)과 대언자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는 본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그 메시지가 미래의 있을 일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30절은 대언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 줍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차례대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계시를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약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알리고 싶은 모든 일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의 끝 부분에 친히 추신을 다셨다면 일은 간단해질 것입니다. 가령 “이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직접적인 계시는 끝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끝’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간접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 주신 두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주님께서서는 한 방식을 쓰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먼저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나간 때에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계시와 영감된 기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씩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물론 전체로는 완전함). 이 구절의 그리스어 어순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지금 마지막 날들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³⁰⁾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in the past)에 쓰인 그리스어는 '낡은'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그리스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 혹은 '오래 지속되었다'는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포드사의 썬더버드 자동차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인 단어는 '사용하기에 오래되었다', 즉 '낡았다', '달았다', '바꿀 때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경찰차나 택시가 낡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시를 주셨던 기간이 다른 기간 - 계시의 수여 방식이 전혀 다른 기간 - 으로 바뀌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 즉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월등한 분이 월등한 계시를 가져오십니다. 풍부함과 완전함에 있어 월등한 계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가르침을 친히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므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셨고 3년이라는 기간에 미처 제자들이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완성하셨습니다(요 16:12-15). 역사를 보면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70년 이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은 사도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두 사항을 더할까 합니다. 첫째로, 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장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계시록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 세계를 꿰뚫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일들의 책(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책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거기서 빼서는 안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먼저는 성경 전체가 아닌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위대한 성경전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마지막 계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0)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성경이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질문 11: 신약시대에 방언이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표적이 아니라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릅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겠네요?” 둘째 질문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확실한 표적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그는 방언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린도전서만 보아도 곧장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는 타언어(방언)의 전문가들만 모인 곳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그 어떤 다른 교제보다 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그렇게 널리 퍼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타언어(방언)의 근본 목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타언어의 선물을 목격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타언어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인상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같은 타언어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바로 전 구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불신행위] 주가 말하노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타언어(방언)가 널리 행해진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특하게 그리고 널리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시대에 고린도 교회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고린도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행18:1-3).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행18:4). 실라와 디모데가 곧 바울과 합류했고 고린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행18:5).

그런데 마침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 선포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고,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은 회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행 18:6). 이제 그들은 복음 전도의 초점을 이방인들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행18:7).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바로 자기네 옆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당의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습니다(행18:8). 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변절하여 교회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보의 뒤를 이은 차기 회당 치리자가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교회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자체를 금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테네가 그리스보의 자리를 이을 자로 뽑혔습니다(행18:17). 물론 성경은 소스테네가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본연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서신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유대인 회당 치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교회 모임은 바로 회당 옆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중에는 전직 유대인 회당 치리자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 교회에 타언어의 선물,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작용할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언어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30절에서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하나가 “모두 타언어(방언)들로 말하겠느냐?”입니다. 어쨌든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은 “아니다!”입니다.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타언어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타언어가 하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선물들을 나누어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12:11).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 타언어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고전12:13). 앞에 나온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동일한 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성경은 이 신약시대에 타언어가 성령 침례를 보여 주는 확실한 표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받았으나 그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2: 사도행전의 체험들이 교회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 나온 내용에 대개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방언과 기적과 치유의 선물(은사)이 실제 행해졌던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선물들은 표적의 성격을 지니며 하나님의 새 메시지 곧 신약을 전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신약성경이 완성되자 표적 선물들은 그 소임을 다했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보여 주었던 기적 선물들은 교회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기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교리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편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던 모세의 법을 성취하시고 끝내셨습니다. 또 그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자리에 두셨고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성전 예배 등을 행했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하나님께 정결례를 드리는 등 율법에 따른 관행들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십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동차에서 기어를 바꾸셨는데 백성들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운행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일시적이거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선물(은사)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과도기 역사를 보여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을 교회 시대 전체의 청사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서신서에 나타난 일들과 늘 같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쳐서 죽이심으로 교회에 즉각적인 징계를 보여 주셨습니다(행5:1-11). 그러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지역 교회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죄지은 자를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고전5:1-5; 고후2:5-11; 갈6:2; 살후3:6-14, 15; 딤후3:10-11). 오늘날의 지역 교회는, 앞에 나온 두 가지 경우처럼 차이가 있을 때, 과도기의 사도행전의

예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향해 확정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에베소서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이 오늘날 교회의 청사진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의 교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둘째 축복’이라는 의견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강림이 늦어진 경우가 사도행전 2장과 8장에 등장합니다. 2장의 경우는 위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은 지 몇 년 후에 성령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성령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가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미,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의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순서로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성령님의 나타나심 즉 타언어(방언)나 표적으로 나타나심이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타언어(방언) 등과 함께 임하는 둘째 축복 즉 성령 침례에 대해 일관적인 사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구원의 일부 즉 구원받은 즉시 신자의 몸을 가득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성령님의 일로 보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리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 8, 10, 19장 중 오직 2장만이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린 사건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자들은 성령님을 간청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실 때를 단순히 기다렸습니다(행1:4, 5, 8). 서신서에는 성령님을 받는 것이나 심지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방인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지침서는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과도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서신서는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리와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신약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엡3:20). 이 위대한 부활의 권능(엡1:19-21)은 기적 같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엡3:21).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선물(은사)을 구할 때 행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³¹⁾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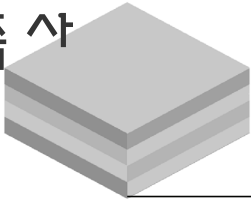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고전14:20).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랍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엡4:11-15).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 당하려 하느냐?(갈4:9)



31)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행한 여론 조사를 보면 그 당시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귀를 믿고 심지어 사탄주의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1973년 워너브라더스픽처스가 제작한 윌리엄 피터 블래티의 '엑소시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2세 소녀의 몸에 깃들인 악령과 이를 퇴치하려는 신부들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봉 당시 졸도하는 관객이 속출하며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영화는 4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각색상과 녹음상을 수상하고 현재까지 공포영화 분야에서는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으며 지금은 후속작으로 '엑소시스트 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세가 반전된 데에는 경험을 중시하고 성경을 왜곡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순절/은사주의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약시대에 성령님의 일과 또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마귀의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진하고 무지한 크리스천들을 미끼로 삼아 돈을 갈취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으며 특히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마귀와 마귀를 내쫓는 일 즉 축사 등의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병과 마귀 들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먼저 병과 마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름만 대면 금세 알 수 있는 은사주의 목사들은 모든 병이 마귀에게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이 걸리면 삼촌 귀신³²⁾, 할아버지 귀신 등을 내쫓기 위해 축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마귀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32) '우리말 큰 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냇'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귀신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The devil)의 줄기들은 '마귀들(devils)'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마귀들을 모두 귀신들로 번역해서 동양의 샤머니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귀신 귀신' 하는 목사들은 대개 잘못 번역된 성경의 희생자들이다.

대부분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밤에 천사를 보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실로 이것은 대개 신경의 질서가 깨지거나 독한 약을 먹거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지 마귀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병자들을 보고 마귀 들렸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이 마귀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시니

병든 것은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마귀 들리는 것은 영적인 침투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입니다. 의사가 병의 처방을 내리기 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듯이 우리도 육체의 질병과 영적 침입 현상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마귀 들리지 않은 사람을 마귀 들린 것으로 몰아붙여서 축사를 하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마귀 들린 것과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그분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맞이한 적이 있는가 물을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분명히 성경대로 구원 간증을 하면 저는 그분에게 “선생님은 마귀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육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아픈 증세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면 결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것과 마귀 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크리스천도 마음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 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귀 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해 줍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봉인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태복음 27장 62-66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뒤에 누가 와서 그분의 몸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무덤의 돌에 봉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66절).

자, 그들이 봉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요? 로마 군인들은 감히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누가 들어가 그분의 몸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봉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봉인하시므로 마귀가 침입하여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 장 11-17절은 신자들의 영적 전투에 대해 잘 보여 주며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여 줍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상형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전신갑주는 곧 갑옷을 뜻합니다. 왜 군사들이 갑옷을 입을까요?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흉갑, 투구, 신, 방패, 칼은 모두 밖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 바울이 기록하였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음악, 영화, 그림, TV 프로그램, 친구 등을 조심해야 하며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귀를 어떻게 쫓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이 감기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썩 나오라!”고 외쳐야 할까요? 성도로서 특히 목사로서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 멋있게 마귀를 내쫓으면 금방 신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다니던 미국의 주립대학 옆의 한 교회에 LA에서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한 김OO 목사가 온다기에 호기심에 차서 갔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는 그 여인의 원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너 누구냐? 왜 들어갔냐?” 등등을 묻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귀신 쫓는 목사가 나타나면 꼭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마귀들이 합작으로 쇼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합작 쇼입니다.

마귀 들리는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마귀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들이 존재하고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마귀 들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축사를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마귀 들렸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상한 것을 보며 꿈이 사납고 자살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무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가라!”고 외쳐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그렇다고 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를 대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그가 결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OO 목사처럼 큰소리로 축사를 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 ‘죄의

샀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로마서 10장 9-10절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만일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1-12절로 데리고 가서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고 수용하면 그 순간에 두 가지 일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둘째로, 그에게 마귀들이 있었으면 그 순간에 그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낸다 해도 이것은 허사가 되고 더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가 마귀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그는 마귀의 소유이며 여전히 지옥 자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담배 피는 사람에게 권유하여 금연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여전히 지옥에 갑니다. 다만 담배 냄새만 없을 뿐입니다.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술을 끊었다 해도 여전히 그는 지옥으로 갑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회사업가 혹은 사회 복지사 혹은 마귀 쫓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마귀나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허사요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12절을 문맥 밖에서 취해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태복음 12장 26절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마귀를 내쫓는 일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43-45절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empty)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축사를 받고 나중에는 여덟 마귀가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사를 받아 마귀가 쫓겨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의 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있었고 더더욱 청소까지 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마귀들이 들어와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축사를 받아 마귀를 쫓아내도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부하 마귀 하나가 내쫓겼다가 나중에 여덟 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는 자가 나가라고 할 때에 그 마귀가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목사가 영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는 여전히 지옥행이며 나중 상태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축사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축사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도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해도 이 사람에게 축사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제정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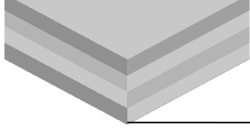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43-45절은 마태복음 7장 21-23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크리스천들이 축사를 한다고 설치며 다니면 그것은 실제로 마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왕국을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더 확실히 정복하기 위해서 잠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럿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짓으로 축사를 한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맞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탐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는 동안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히 넘치길 기원합니다.

추천 도서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3.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9.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그리스도예수안에.
10.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12.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3.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14.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5.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델 R.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6.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7.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8.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0.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21.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22.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3.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4.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25.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26.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7.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왜 안하는가?

지은이 / 정동수

1판 1쇄 / 2014년 9월 15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7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38-8 03230

정가 : 4,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